116

소년단

1960.12

㊕ 우리는 자랑한다

김 병 무

붉은 넥타이를 맨 우리들
손들어 인사를 드린다
조국의 끝 없는 행복을 위해
1960년이여! 그대는 어떻게 달려 왔는가.
철갑 옷을 입고
하루를 1년 맞잡이로 일한 용광로들
온 들판이 우렁 우렁 울리게 말한다
《동무들아! 우리는 쇠'물을 끓여
강철로 조국의 옷을 입혔다》

크고 작은 뜨락또르들 줄지여 달리는
기계화의 자랑 높은 들판들
산발이 우렁 우렁 울리게 말한다
《동무들아! 우리는 황금의 이삭으로
조국의 옷자락을 수 놓았다》

하늘과 땅 사이
검은 연기 토하는 키다리 굴뚝들
구름 모자를 쓴 궁전들
혁신의 불꽃을 높이든 수 많은 청산리들
산간에도 통통 달리는 뜨락또르들
전속력으로 일떠서는 비날론 공장
폭포처럼 쏟아지는 꽃무늬 비단천들
기계가 기계를 찍어 내는 푸레스들……
조국의 온 산천이 우렁 우렁 말한다
《동무들아 천리마를 타고
나는 구름을 차며 뛰여 왔다!》

영광의 꽃다발을 안은 1960년!
이마에 돋힌 땀을 씻으며
붉은 넥타이를 맨 우리에게 묻는다

《동무들은 어떻게 달려 왔는가》

다리 통만한 수세미 오이를 안고
누님 얼굴같이 둥근 해바라기를 안고
빨간 눈알의 토끼를 안고……
배우며 일해온 보람을 자랑하며
산발이 쩌렁쩌렁 울리게 말한다
《김 일성 원수님의 아들 딸 답게
우리는 천리마를 타고 배우며 뛰여 왔다》

아이들이 꾸려 놓은 실험실들
아이들이 만들어낸 선반기와 틀반들!
아이들이 《꼬마 5개년 계획》활동으로 보내준
전야에 달리는 소년호 뜨락또르들……
온땅이 쩌렁쩌렁 울리게 말한다
《나를 보아라! 우리의 소년단원들의
힘과 지혜가 깃든 나를 보아라!》

붉은 넥타이를 맨 우리들
손들어 인사를 드린다
조국의 빛나는 력사의 페지우에
영광의 꽃다발을 안고 선 1960년이여!

천리마의 채찍을 얻어
구름을 차며 내 닫는 아저씨들과 함께
보다 높고 빛나는 새해의 고개를
우리도 뛰여 넘으리라
수령님의 어린 전사답게!
다음해의 고개도 또 그 다음해의 고개도……

—1960. 12—

소년단 1960년 12호 내용

삼천만 인민의 마음을 담아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8차 회의에서는 지난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원수님이 내 놓으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실현할 자세한 방도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하고 비참한 구렁에서 헤매는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할 방도들을 자세히 밝힌 남조선 《국회》와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편지와 의견서에서는 한결 같이 우리가 주장해 온 대로 모든 외국 군대가 물러 가게하고 조선 사람 끼리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당장 이를 실시할 수 없다면 남북 련방제나 남북 경제 위원회—어느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련방제나 남북 경제 위원회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내 놓았지요.

즉 남조선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남조선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 남조선의 어업을 발전시키고 어민들의 생활을 구원하는 일, 남조선에 새 공장들을 세우고 민족 공업을 일궈 세우는 일,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북이 서로 물건을 교류하며, 남북이 서로 편지 거래를 하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일, 북조선 공장에서 만든 기계, 기자재들을 아낌 없이 보내 주고 도와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조국의 장래 운명과 겨레의 행복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뜨거운 마음의 표시이며 3 천만 인민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이를 한결 같이 지지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힘차게 나서고 있습니다.

(1)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잔풀 숲에 누워 있었다. 뭇 별들이 반짝이는 밤 하늘이 보였다. 이런 때에 어디선가 《원주! 원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원주는 소리칠 기운조차 없었다.

(2)

원주는 있는 힘을 다하여 싸창을 꺼내 들어 밤 하늘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윽고 그에게로 유격대원들이 달려 왔다. 그의 선두에는 현칠 중대장과 경호의 얼굴이 보였다.

(3)

원주의 혁명적 책임성으로 하여 부대는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전우들이 원주를 들것에 메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원주! 조금만 참으라구, 이제 병원이 머지 않았어!》 현칠 형님이 다정히 그에게 속삭이는 말이였다.

(4)

원주는 얼마 후 후방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시도 부대를 잊어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아픔이 가시지 않는 다리를 원망하면서 다시금 대오로 돌아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5)

두달이 지났다. 그의 상처도 거이 다 아물고 이제는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중대가 돌아 왔다. 원주는 현칠 중대장의 품에 안겨 어린 애처럼 울먹거렸다.

(6)

다시금 대렬에 참가하게 된 원주는 금시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것만 같았다. 그의 부대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으로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흰 눈을 머리 우에 인 백두산이 보였다. 원주는 저도 모르게 《백두산아! 조국의 산아!》 하고 웨치는 것이였다.

(끝)

공청원들을 따라서

김 옥 순

가슴에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민청 형님들의 뒤를 따라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며 자라는 자랑스러운 소년단원 동무들을 볼때 마다 나의 아동 혁명 단원 시절이 생각되군 합니다.

나의 아동 혁명 단원 시절엔 공청 조직이 있었는데 공청원들은 우리 아동 혁명 단원들을 항상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면서 친 동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가 살던 중국 길림성화룡현 중촌(유격 지구)에는 아이들이 공청원들의지도를 받으면서 아동 혁명단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도 11세 때부터 아동 혁명단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한 농사집 딸이였던 나는 어려서 부터 남의 집 아이를 보면서 하루 종일 발 방아를 찧군 했답니다.

하루는 방아 찧는 일이 너무나 힘에 겨워 기를 쓰며 찧고 있는데 등에 업힌 어린 아이가 자꾸 울어대서 안타까운 김에 나도 따라 울고 말았지요.

이때 마을 어른들이 늘 례절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던 《고려》라는 청년이 와서 나를 달래며 차근 차근 집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동 혁명 단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고려》는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시는 항일 빨찌산에서 아동 혁명단을 조직 지도하라고 보낸 공청원이였어요.

이 공청원 형님의 지도 밑에 아동 혁명 단원들은 아침 조기회로부터 하루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유희와 노래, 춤도 배우고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지주, 자본가는 어떤 놈인가》,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는 항일 빨찌산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5.1절이나 10월 혁명 기념일 기타 기념일에는 붉은 기를 들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단 별로 산에 올라 가 산 나물을 캐서 빨찌산에 보내기도 하고 노래, 춤, 연극, 가극을 준비해 가지고 위안 공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빨찌산의 통신 련락도 하고 삐라도 뿌리군 했습니다.

일에 시달며 눈물만 흘리고 살던 나는 따뜻이 사랑해 주는 공청원들과, 친한 동무들인 아동 혁명 단원들의 곁을 잠시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하루 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였고 어린 생각에도 어렴풋하게 나마 밝은 앞 길을 향해 나가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농사 일만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처녀 애가 밤 낮 나가 다닌다고 욕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동 혁명 단원들이 공연하는 가극 구경을 하고 밤 늦게 집에 왔더니 아버지는 성을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아동 혁명단 조직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동 혁명단에는누구나 다 입단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조직에 충실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 동무들을 먼저 입단시키군 했습니다.

나는 하루 속히 아동 혁명 단원이 되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직에서 훌륭한 일을 해서 모범을 보이자면 통신 련락을 하고 삐라를 뿌리는 어려운 일을 해야 했는데 떨리고 겁부터 앞서서 감히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화룡현에 삐라 공작을 갔다 온 김 계현, 김 창남이라는 공청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이들은 일제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라는 내용의 삐라를 뿌리다가 놈들에게 발견되여 추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청원 두 사람을 향해 80여 명의 경찰 놈들이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눈이 내린 초 겨울이였는데 그들은 백 이십리 길을 발을 벗은 채 뛰였습니다. 놈들은 악착스럽게 계속 추격해 왔습니다. 두 공청원은 이를 악물고 뛰다가 조그마한 다리 밑에 흙 무더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흙 속에 몸을 묻고 숨 쉴 구멍만을 내 놓았습니다. 백 이십리 길을 허덕이며 따라 왔던 놈들은 깜박 속아서 허둥지둥 찾아 다니다가 되 돌아 가고 말았습니다. 아동 혁명 단원들 앞에서 자기들의 투쟁 이야기를 해 주던 두 공청원은 자기들이 만약 놈들에게 체포되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였습니다.

아동 혁명단 지도원인 《고려》에게서 빨찌산 대원들과 공청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를 들어 왔지만 백 이십리 길을 뛰여 오느라고 시달린 그들의 얼굴이며 흙 투성이가 된 옷, 얼어서 띵띵 부어 오른 발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참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공청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아동 혁명 단원들은 통신 련락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캄캄한 밤에도 저마다 가겠다고 나섰답니다.

공청원들의 용감한 투쟁을 보고 새 힘을 얻은 나도 공청원들이 회의를 할 때면 보초도 서고 빨찌산에 련락도 다니게 되였습니다. 공청원들과 같이 삐라도 뿌리

고 구호를 붙이는 일에도 참가했습니다. 나는 리 학규라는 지주 놈의 집 대문 짝에다가 《지주놈을 타도하라》는 구호를 직접 붙이게까지 되였습니다.

그래 나는 공청원 《고려》의 지도를 받아 입단 준비를 하여 열 한살 때 아동 혁명단에 입단하였습니다.

공청원들의 모범을 본 받아 용감히 투쟁한 아동 혁명 단원들의 이야기는 이루 다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동 혁명 단원 리 금순 동무에 대한 투쟁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고아로서 빨찌산 아저씨들과 공청원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동 혁명단에서 자라 난 동무였습니다. 그는 아동 혁명단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통신 련락과 삐라 공작, 부락에 정탐 온 놈들을 잡아 내는 데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때 우리 부락은 여러 차례 일본 토벌대 놈들의 《토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토벌》을 온 놈들은 부락에 감쪽 같이 들어 와서 빨찌산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려 하였습니다.

부락 첫 어구에 살던 금순은 놈들이 들어 서자 마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날창에 찔리워 쓸어졌습니다.

다행히 다리만을 찔리웠던 금순은 이를 갈며 아픔을 참고 죽은 척 하고 있였습니다.

그는 벌써 아동 혁명단 조직과 공청, 당 조직에 이 사실을 재빨리 련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 공청 보초가 있는 곳까지 뛰여 가 련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보초선을 찾아 가다 그만 놈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자꾸 조여 들었습니다.

《나는 아동 혁명 단원이다. 나를 체포하면 놈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공청원들이 있는 곳, 아동 혁명 단원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고문한 끝에 죽일 것이다. 지금 나는 이 다리를 끌고 어디로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 금순은 놈들이 체포하려고 달려 드는 순간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마루에 먼저 피신해 있던 70 여 명의 우리 아동 혁명 단원들과 《고려》와 영환, 충현 세 공청원들은 이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놈들과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불같은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놈들의 《토벌》 때문에 더는 부락에 있기 어렵게 된 우리는 김 일성 원수님과 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빨찌산들이 있는 유격 지구를 찾아 떠나게 되였습니다.

나는 《고려》와 충현, 영환 세 공청원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격 지구로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의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나가 다닌다고 욕을 하던 때와는 다른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시는 빨찌산들은 진정으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 용감히 싸우는 공청원들은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두말 안 하시고 공청원들에게 《당신들을 믿네, 내 딸이 훌륭히 싸우도록 잘 이끌어 주게》라고 말씀하실 뿐이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 오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인사를 하고 유격 지구로 떠났던 것입니다.

유격 지구에서는 아동 국장인 공청원 리 순희 동무가 우리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김 일성 장군님이 가시는 길로 끝까지 따라 가야 해요. 그러자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동 혁명단의 규률을 지켜 내야 해요》하고 항상 따뜻이 지도해 주군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새 힘을 돋구어 주군 했습니다.

나는 공청원들의 모범을 따라 16세 때부터는 직접 총을 메고 김 일성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꿋꿋이 싸웠습니다.

나는 오늘 사회주의 조국의 품안에서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는 소년단원 동무들을 볼 때마다 항상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당의 부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민청 형님들의 모범을 배우며 따르는 소년단원 동무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흐뭇해 지군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지난 날 공청원의 모범을 따라 빨찌산 아저씨들을 도와 원쑤와 용감히 싸운 아동 혁명 단원들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용감하고 굳세인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요 천석군 부자 부럽지 않아요

이른 아침 나는요 학교 가는 길
이웃 집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철이, 새 양복에 새 구두까지 신으니 옛날
<부자집> 아들 갔구나》

부자집 아들이란 말씀에 나는요 성나서
할머니께 뛰여 가 일러 바쳤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겠죠
《정말 넌 옛날 부자 집 아들 보다 낫다

어디 옛날 부자 집 아들인들
너 처럼야 그렇게 행복했겠니
새 양복 새 구두 새 모자
쌀 천석 부자 집 아들 어림 없다

무연한 들판에 뜨락또르 통통통……

쌀독마다엔 옥백미 가득 가득
집집마다 행복한 웃음이 넘쳐 나는 생활
어디 옛날 부자인들 꿈엔들 이 행복 누려 봤겠니》

이마의 깊은 주름 꽃잎처럼 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
나는요 학교 가며 마음 속에 외워요
정말 옛날 부자 부럽지 않구나

함남 신포 공업 학교
박 상 용

우리는 첫 고지에 올라 섰다

주창자 1, 남 1, 녀 1, 남 2, 녀 2, 　　리 호일

주 　기'발처럼 붉은 넥타이 휘날리며
소년단의 인사를 드리자.
남 1 　사회주의 첫 고지에 오른
이나라 천리마 기수들에게
다함 없는 영예와 감사를 올리자.
녀 1 　동무 동무 친한 동무
목청을 합쳐 노래 부르자.
남 2 　휘황한 당의 햇살 비치는 땅.
아름다운 락원이 꽃 피여 난 고지.
녀 2 　빛나는 5개년의 령마루에
우리는 천리마 타고 올라 섰다.
합 　그렇다. 우리 나라는 첫 고지에 올라 섰다.
주 　반 만년 고역살이 헌 옷을 벗어 던지고
사회주의 새 옷을 갈아 입은 조국.
남 1,2 　우리 조국은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달라졌는가.

녀1,2 　장백의 눈보라 헤치며 피 흘리며,
원수를 짓부셔 싸우신 혁명 투사들.
주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이
그 처럼 밑어 그리던 그 세상
사회주의 제도가 이 땅에 높이 솟았다.

녀 1 　사람도 강산도 변하고
어데 가나 생활이 꽃핀다.
주 　보라!
5개년 계획의 크나큰 열매를.
보라,
세월을 주름 잡은 승리자의 자랑으로.

남 1 　이 나라 공업의 거세찬 물'결은
다섯 해 계획을 두해반에 이룩하고
해 마다 45%의 더 높은 속도로 달렸다.

녀 1 　야장'간에서 호미와 낫밖에 벼르지 못하던 빈 터 우에 인민들은 세웠다.
합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를!

남 2 　집체 같은 8 메터 타닝반.
녀 2 　3천 톤 프레스, 방직기도 재봉기도 쏟아진다.

남 1 　덕천 자동차 공장에 가 보아도 좋다.
녀 1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 가 보아도 좋다.
주 　72분만에 <승리58>형 화물 자동차 한대씩
나온다.
남 1 　70분에 한대의 뜨락또르가 대지를 구르며
달려 나온다.
주 　사람들이여 놀라지 말라.
왜정 때면 120년 동안 걸려야 만들
농기계들을 한해에 만들어 낸다.
남1,2 　삼천리에 무쇠 갑옷을 입히고.
녀1,2 　한 사람에게 18,7 메-터의 천이 차례지는
우리 나라.
남 2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낸다.
녀 2 　하고자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 낸다.
주 　놀라지 말라,
처절한 불비 속에 철골 엿가락 처럼 녹아 내린
남 1 　폐허 우에 용광로 높이 솟아
쇠'물은 폭포로 쏟아진다.
남 2 　군마다 17 개의 지방 공장 솟고
수령님 손'길따라 13,000 대의 공작 기계
새끼쳤다.
녀 1 　가장 앞선 나라에서도 10년은 걸린다는
세계에 으뜸가는 비날론 공장 솟아 오른다.

남 2 　전국—만 여개의 상점들에는
우리의 상품으로 가득찼다.
녀 2 　바라보면 지평선 아득히
관개 수로 춤 추며 수 만리 뻗어 내리여
녀1,2 　지상 락원에 쏟아진
올해의 금나락 380만 3천 톤…
남 1 　마을 마다 부자가 된 농촌
심심 산'골에도 전기'불이 휘황히 밝다.
녀 1 　기계로 씨 뿌리고 기계로 밭 갈고
기계로 걷어 드린다.
주 　옛날 조상들이 이 밥에 고기 국 먹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유 계란 반혀 이밥에 고기 국 먹고 벽돌 기와 집 쓰고 산다.
녀 2 　우리는 동양에서 처음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했다.
녀 1 　그뿐인가 대학은 76개로 늘고
주 　그렇다. 우리에겐 배울 걱정도 없고, 병나도 무료 치료 받는다.
남 2 　이제는 온 나라가 입는 것, 먹는 것,
쓰고 사는 것, 걱정 없다.
녀 2 　모두가 한 집안 식구 온 나라 거리와 마을이 한 가지 붉은 기'발 높이 휘날린다.
주 　아, 누가 안겨 주었드냐
이 행복, 이 기쁨, 이 자랑.
남1,2 　5개년의 높은 고지에서
합 　우리 뜨거운 심장의 노래 부르자.

남 1 　5개년 높은 고지 우로
우리의 소년호 렬차도 달린다.
남 2 　우리의 자랑 깃든 소년호 뜨락또르 지축을
울린다.
녀 1 　어찌 그뿐이랴, 소년호 기중기도 나래친다.
합 　우리의 《피마 5개년 계획》 활동도 빛난다.
주 　불구름 덮인 재'더미 속에서도
먼저 우리들의 배움 터 자리 잡아 주신
녀 1 　어머니 당의 품에서
녀 2 　어버이 수령의 품에서
합 　휘황한 5개년의 금자탑은 높이 솟았다.
주 1 　경애하는 수령님이 드신
붉은 연필 위대한 설계도 그리시면
합 　대동강 반에 철의 도시 일며 섰고,
주 　수령의 손'길 열두 삼천리 짚으시면
남 1 　수 천년 건갈이 하던 땅에
생명수 철철 넘치어 옥백미 쏟아졌다.
남 2 　당의 태양 같은 빛'발 속에서
천리마는 나래 돋혀 날아 올랐고
녀 1 　수령이 열어 주신 높은 고지를 향하여
천리마는 불꽃 날리며 내달렸다.
녀 2 　수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꿈 꾸어
오던 지상 락원으로 꾸려 놓았다.

녀 2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며
얼마나 먼 곳으로 달려 왔는가.
합 　얼마나 높은 고지에 올라 섰느냐.
주 　시궁창의 구데기 같은
반당 종파 분자를 짓부시며
남 1 　신비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며
남 2 　세월을 주름 잡아 질풍 같이 달렸으니.

합 　우리 나라는 승리 했다.
우리 인민은 첫 고지에 올라 섰다.

녀 1 　수령이 가리키는 한 길을 따라
녀 2 　당의 기'발 휘날리며
합 　공산주의 향하여 나아 간다.

남 1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남 2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주 　모두가 붉은 사상 붉은 마음으로
합 　일하며 배우며, 배우며 일한다.

주 　모두가 당의 심장으로 고동치고
수령의 부름에 충직한 새 사람들
남 1 　청산리 정신이 나래치는 고지 우에서
남 2 　금빛 물 찬란한 7개년 고지를 바라본다.

녀 1 　자랑찬 5개년 계획을 보람으로 맺고
녀 2 　천리마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한다.
남 1 　미국 승냥이 물러 가라고.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에게도
녀 1 　헐벗고 굶주린 남반부 아이들에게도
합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나눠 주련다.
주 　폭풍이 사납다 한들 파도가 세다 한들
우리의 앞길 그 누가 가로 막을 수 있으랴
남 1 　강철 250만톤, 전력 170억 키로와트시,
녀 1 　석탄 2천 300만톤, 세멘트 430만톤.
남 2 　직물 5억 메터, 화학 비료 150만톤
녀 2 　높이 솟은 7개년 눈부신 새 고지로
합 　우리는 달린다.
남1,2 　이 보람, 이 영광을 지니고
녀1,2 　쌍두 천리마 타고 달리는 근로자 아저씨
들의 뒤따라
합 　우리도 배우며 달린다 달린다.
주 　우리는 빛나는 5개년의 고지에 올라 서
목청을 돋구어 합창한다.
합 　사회주의 우리 조국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일흔이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

글 최옥선　　　　그림 오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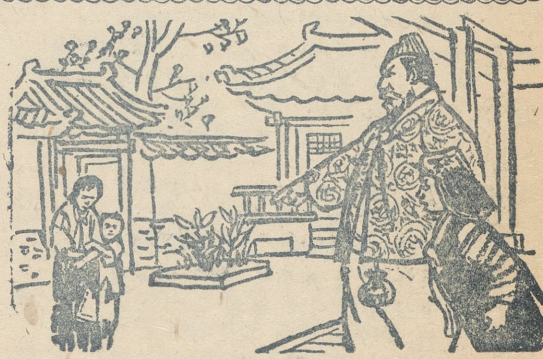
평양시 락랑 구역 남송 농업 협동 조합 마을에서 사시는 오 영근 할아버지는 이제 설을 쇠면 일흔이 되신다. 할아버지는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 하기 전 먼 옛날 리조 때에도 왜놈 때에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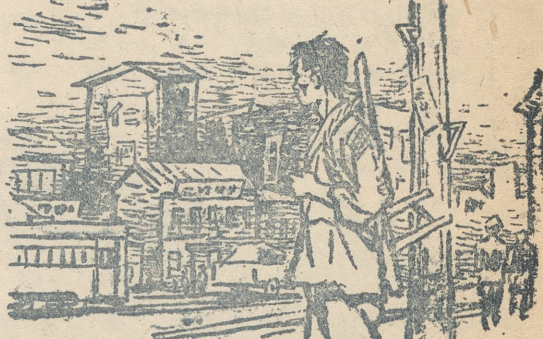
그러나 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에 안겨 비로서 난생 처음 떳떳한 땅의 주인이 되였고, 아무 근심 걱정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금년에는 김 일성 원수님이 청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농사를 훌륭히 지어 례년에 드문 풍작을 이루었다.

할아버지는 말끝마다 《내 나이 칠십 평생에 처음 보는 풍년이다, 모두가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덕분이지.》라고 하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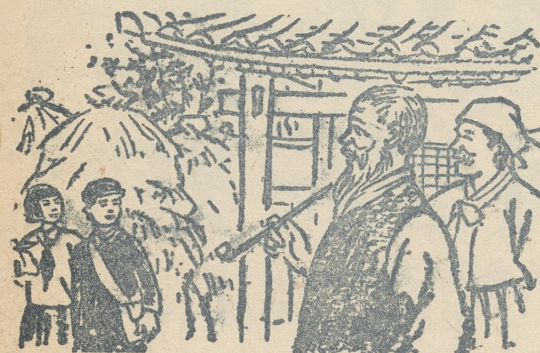
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영근 할아버지는 아홉살 때 부터 지주 집 머슴이 되였다.

영근이는 물을 깃고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해 오는 등 어른에게도 힘에 겨운 일을 하였지만 먹는 것이란 지주집 식구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부엌 구석에서 한 술씩 얻어 먹었다.

② 영근이가 고된 일을 하는 것을 애처럽게 생각한 영근 어머니는 영근이의 일을 도우려고 찾아 갔다. 그랬더니 지주놈은 옷이 더럽다고 문안에도 들어서지 못하게 하였고 코 흘리는 지주 집 애를 까지도 머슴의 어머니라고 반말을 하며 멸시했다.

③ 8년을 죽도록 머슴살이를 하고서야 몇뙈기 소작 땅을 얻었다. 때가 휘도록 일해서 농사 지어 놓으면 지주놈이 와서 벼 넉단에 한 단을 남기고는 몽땅 가져갔다. 빚진 것을 물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주 놈은 자기 생일 날에 선물을 사 가지 않았다고 소작 땅을 절반이나 빼았았다.

④ 할아버지가 스므살이 되던 해 왜놈의 세상이 되였다. 왜놈들이 들어 오자 영근 할아버지네 생활은 더욱 비참해 졌다.

여름내 농사를 짓고도 지주 놈에게 빼았기고 왜놈들에게 털기우고 나면 해마다 초 겨울부터 먹을 것이 없어 도시로 짐을 지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였다.

⑤ 한 해 가을 왜놈들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쌀을 빼았으려 왔다. 지주놈이 몽땅 털어 간 뒤라 쌀이 없었다. 영근 할아버지 네 집을 뒤지다 못해 쌀을 못 얻어낸 일본 순사놈은 영근 할아버지를 동여 놓고 죽어라고 때렸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어데 가 하소 할 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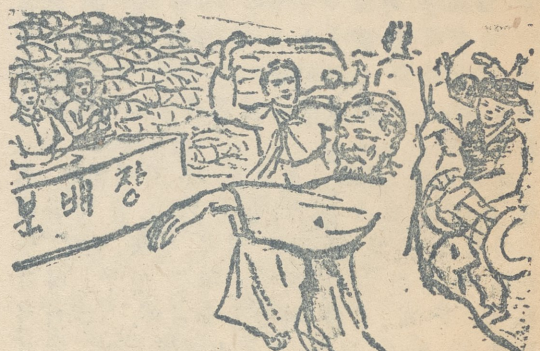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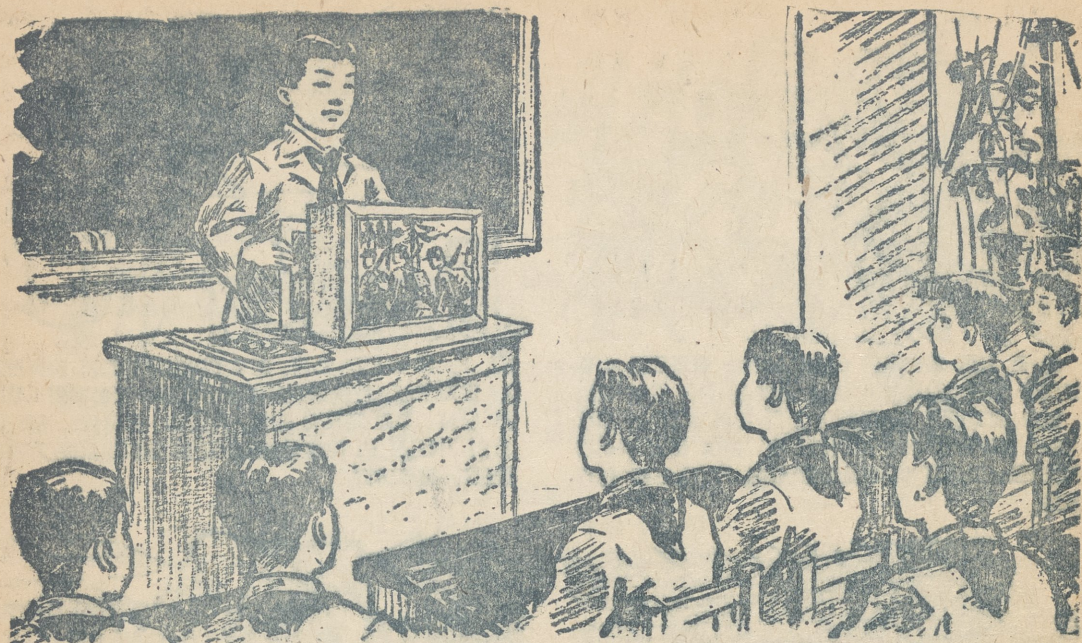
⑥ 8. 15 해방이 왔다. 쉰 살이 넘도록 자기 땅이라고는 만저 보지 못한 영근 할아버지는 로동당의 품에서 난생 처음 떳떳한 땅의 주인이 되였다. 6천 여평의 기름 진 논 밭을 분여 받은 날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다.

⑦ 영근 할아버지는 제 땅에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하였다. 그리하여 벌써 토지 개혁 후 3년 만에 고래 등 같은 기와 집을 지었다.

공부 시키지 못하고 있던 아들 딸들을 모두 중학교, 전문 학교에 입학시켰다.

⑧ 살림은 해마다 늘어 갔다. 이듬해에는 또 큰 황소까지 사 맸다. 양복장 이불 장, 가장 집물들도 없는 것 없이 마련했다. 농사 지은 쌀은 해 마다 먹고 쓰고 남아 국가에 애국미로 바치군 했다.

할아버지는 모범 농민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⑨ 마을에 협동 조합이 조직 되자 할아버지는 선참으로 들어 갔다.

조합에서는 관개 공사를 실시하여 물 걱정도 없어지고 로동당이 가르치는 새로운 농사 법을 써서 농사를 지으니 수확은 늘어만 가서 해 마다 많은 분배를 받았다.

⑩ 금년에는 특히 김 일성 원수님께서 청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농사를 잘 지어 할아버지의 칠십 평생에 처음 보는 대 풍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4톤의 알곡과 수백원의 돈을 분배 받았다. 할아버지는 로동당 시대에 와서 부자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분배장에서 춤을 추시였다.

혁명 정신을 본받아 생활은 꽃핀다

—함북 김책시 송암 중학교 단에서—

글 최 죽산　　　　그림 윤 영자

크루쇼크의 활동을 높여

《지난 기간 단 위원회와 분단 위원회들에서는 혁명 전통을 배우는 일을 많이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학과 학습을 게을리 하고 동무를 도울 줄 모르며 학교 재산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 총회에서 새로운 단 위원회를 선거하는 날 명주 동무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은 이렇게 토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선거된 단 위원회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실을 더욱 잘 꾸리며 분단들에 새로 조직된 혁명 전통 연구 반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 전통 연구 사업을 더 잘 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에서는 혁명 전통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동 혁명단의 모범을 본 받고 따르는 일들을 더 많이 조직하도록 분단을 돕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아직도 어떤 동무들에게는 소년단원의 으뜸 가는 임무인 학과 학습을 게을리하며, 동무를 도울 줄 모르며, 학교 재산을 사랑할 줄 모르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단 위원회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실을 중심으로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아동 혁명 단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항일 빨찌산들이 어떻게 학습하였고 동무를 도와 주었는가를 알려 주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조직된 자료 수집반에서는 당 력사 연구실에 민청 중앙 위원회가 소년단원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지정한 《만경대》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과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배움의 첫 걸음》, 《단합된 힘》, 《인민과 군대의 생명 재산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등을 뽑아 베낀 《책》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관 선전반 동무들은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학습하였으며 혁명 투사들이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어떻게 학습 하였는가를 내용으로한 그림 책들과 스크랩을 21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중 《배움의 첫 걸음》과 《김천명아 전하라》 등은 인민반 동무들을 위해 그림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학 예술반 동무들은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른다》, 《동지를 돕는 마음》, 《당을 따른 아동 단원들》을 연극으로 준비 했고 《배움의 천리'길》을 무용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 벽보 《붉은 꽃봉오리》에는 《학습은 왜 소년단원의 으뜸 가는 임무로 되는가》를 이야기로 소개했고 우등, 최우등생들의 학습 경험도 소개하였습니다. 혁명 전통 학습을 잘하며 동무를 사랑하고 학교 재산을 애호하는 동무들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분단들에서는 단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항일 빨찌산 회상기를 읽고 감상 모임, 이야기 모임, 연구 발표회 등을 가졌습니다.

19분단에서 책 《만경대》에 있는 《배움의 천리'길》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진 날이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학습에 뒤떨어진 영식이는 《동북에서 돌아 온 원수님은 우리 말을 다른 아이들이 4년에 걸쳐 배울 것을 한 해 동안에 따라잡고 앞서기 위해 선생님의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수님의 어린 시절 처럼 학습을 하지 않고 시간 중에 장난질을 하였고 집에 돌아 가서도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단에서 늘 충고만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언제나 최우등을 하여 온 길자는 《나는 영식 동무의 학습을 도울 것을 분단에서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암만 알려 주어도 모르니 마지막에는 숙제한 학습장만 빌려 주고 시간 중에 딴'전질로 〈방조〉하였습니다. 때로는 시끄러워도 했습니다. [illegible] 러 험하고도 머나먼 길을 서로 도우며 백두산에까지 무사히 간 아동 혁명 단원 명자 이 처럼, 〈제 아동에 대한 이야기〉에서의 부환이 처럼 동무를 돕지 못했고 분단의 위임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꼭 영식이를 우등으로 되겠금 도와 주겠습니다》라고 지난 날의 자기를 비판하였습니다. 그후 길자는 매일 저녁 영식이를 찾아 가 집'일도 도와 주면서 뒤떨어진 산수 과목부터 배워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식의 학업 성적은 퍽 좋아졌습니다.

분단 동무들이 김책 수산 사업소 천리마 민청호 (자망 71호)선장 형님과 상봉 모임을 가진 날이였습니다. 아저씨는 원수님이 한해에 300일 이상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교시를 받들고 315일 이상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은 전체 어로공 아저씨들이 당과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탔고 또한 자기 배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여 2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재산을 아낄 줄 모르던 원재를 비롯한 진호와 몇몇 동무들은 그날 인민반 교실에 가서 삐걱거리는 책상과 의자를 죄다 고쳐 놓았고 창고에 있던 깨여진 책상과 걸상을 14개나 고쳐 놓았던 것입니다. 청진이는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그림극 《무지개 잡이》를 본 후 만경대를 사랑하고 가꾸신 어린 시절의 원수님처럼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 주변에 130포기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처럼 매일과 같이 분단들에서는 동무를 돕고 학교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는 이 소식을 벽보와 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원들을 통하여 다른 분단들에 소개하며 경험을 본 받게 하고 있습니다.

꽃 피여 나는 붉은 마음

명화가 락수'물 소리에 잠을 깬것은 한밤중이였습니다. 낮에 협동 조합 아저씨들을 도와 한 절반 지붕을 이은 조합 옥수수 창고 생각이 벌떡 들었습니다. 명화네 분단 동무들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있는《인민과 군대의 생명 재산을 목숨으로 지킵시다!》를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진 후 오늘 협동 조합 아저씨들을 도와 창고 지붕을' 이었던 것입니다.《지붕을 다 이지 못한 창고에 비'물이 새여 들면 옥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조합원들이 땀을 흘리며 지어 놓은 낟알이 아닌가》여기까지 생각한 명화는 급히 집을 뛰쳐 나섰습니다. 막상 어둠 속에 나서니 더럭 겁이 나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격 대원 최 숙 동지는 인민과 군대의 생명 재산을 보위 하기 위하여 물 불을 헤아리지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가!)

용기를 내여 창고에까지 다가 가니 마침 조합 부기장 아저씨와 몇몇 조합원 아저씨들이 와서 지붕에 가마니를 덮고 계셨습니다.

명화는 아저씨들을 도와 가마니로 지붕을 다 덮고야 돌아 왔습니다.

명화의 아름다운 일이 동무들에게 알려진지 며칠이 안 되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해군 아저씨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 왔습니다. 해군 아저씨는 종이에 싼《라사》한 개를 책상 우에 놓으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사흘전 이야기예요. 해질 무렵 인섭이가 집으로 돌아 갈 때였지요. 해군 아저씨 한 분이 자동차 앞에서 무엇인가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난가부다, 도와 드릴 수 없을가) 이렇게 생각한 인섭이는 해군 아저씨에게로 뛰여 갔습니다. 아저씨는 자동차 밑에 들어 가 누운 채 스파나로 라사를 조였으나 라사는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였습니다. 아저씨의 손은 기름 투세기가 되고 이마에서는 비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쥐고 나온 라사를 본 인섭이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난듯《해군 아저씨 도와 드릴 수 있어요.》하고는 책가방을 운전 실에 내동댕이 치듯 놓고 어디론가 냅다 뛰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고장 난 자전거를 고치다가 아버지가 쓰다 남은 라사와 셔부치들을 모아 두던 일이 생각 났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인섭이가 가져 온 라사로 자동차를 고쳤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곧 벽보《붉은 꽃봉오리》에 실렸습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처럼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아동 혁명 단원들의 슬기로운 정신을 본 받으며 생활하는 이곳 학교 소년단원들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날마다 늘어 가고 있습니다.

당에 충직한 민청원 형님들

—아오지 탄광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의 이야기—

글 주 태 순　　사진 김 성 국

지난 3월이 였어요.

아오지 탄광 회암갱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민청원 형님들은 한 채탄장에서 1만 톤의 석탄을 캤답니다.

한 달에 한 채탄장에서 1만 톤의 석탄을 캤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지금까지는 어디서나 한 달에 5천 톤의 석탄을 캔 것이 제일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은 그 보다도 배나 더 많은 1만 톤의 석탄을 캐였으니 이것은 기적 가운데서도 큰 기적이 였답니다.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형님은 그런 재주가 어디서 나왔나요》하고 물으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답니다.

《재주는 무슨 재주람,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들의 가슴에 불타는 충성이면 무슨 일인들 못해 내겠나》

그렀습니다. 따로 재주가 있어 한달에 한 채탄장에서 1만 톤의 석탄을 캔 것은 아니랍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심으로 불 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지난 3월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께서 아오지 탄광에 오시여 현지 지도 하신 달이였어요.

수상님께서는 민청원들이 어렵고 힘 든 일에 언제나 앞장 서야 한다고 교시 하시였어요.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은 자기들이 만든《붉은 수첩》에 수상님의 현지 교시 내용을 적어 두었어요.

민청원 형님들은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

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한 작업반이 한 사람 마음이 되여 기술 학습부터 했답니다.

기술과 기능이 없이는 깊은 갱도 속에서 더 많은 석탄을 캘 수 없답니다.

이 작업반에는 그 때까지만 하여도 고중을 갓 졸업하고 탄광에 들어 온 형님들이 대부분이였어요.

소년단 생활에서부터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 하기 위해 항상 준비해 온 그들은 깊은 갱도 속에서 민청원의 영예를 더욱 떨치였답니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이 작업반에는 탄광에 경험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리 승환 형님 뿐이였어요.

리 승환 형님은 새로 들어 온 민청원들에게 기술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갱도의 규정에 대하여, 동발을 세우고 콤베아에 석탄을 싣는 방법 등 실로 어린 학생에게 한 자 두 자씩 가르쳐 주는 선생님 처럼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니 민청원들도 자연히 더 기운을 내여 기술도 배우고 열성껏 일하게 되였답니다.

갱도 안에서는 지상에서 보다 몇배 어려운 일에 부더치는 때도 있지요.

그것은 지압이 갑자기 심하게 오는 때랍니다.

바로 그런 지압이 지난 3월에도 있였어요.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채탄을 중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답니다.

그것은 갱도가 40 메터 구간이나 지압을 받아 무너져 들었기 때문이였지요.

1만 톤을 캘 것을 결의하고 나선 그들 앞에 이것은 실로 뜻하지 않은 난관이였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설것을 결의한 민청원 형님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굽히지 않았어요.

막장에서는 《고난의 40일》,《한홉의 미시'가루》 등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제목들을 뽑아 가지고 토론회를 열였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 마다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을 본받았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돌격대를 조직 하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한 달이 걸렸어야 할 이 40 메터 구간 복구를 단 1 주일 동안에 해치웠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서로 힘 든 일을 하겠다고 자기 동무들을 쉬운 일에 밀어 놓으며 앞장에 섰답니다.

밖에서 갱목을 메고 깊은 갱도 속으로 달음쳐 들어 갈 때면 온 몸은 땀 투성이가 되였어요. 그래도 민청원 형님들은 《좀 쉬여 합시다》 하고 쉬기를 권하는

더 많은 석탄을 캐 내기 위해
힘쓰는 작업반 형님들

작업 반장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실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난관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채탄 작업이 다시 시작 되였어요.

3월 20일에 가서 중간 총화를 하여 보니 1만 톤에서 아직 못한 것이 2천 톤이 였어요.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 반원들은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기어이 1만 톤을 생산할 기세였습니다.

3월 31에 가서 다시 총화해 보니 6백 톤이 모자랐답니다.

그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지막 날에는 선진적인 흐름식 작업 방법을 더욱 잘 했지요.

우 아래 채탄장에서 천공, 발파, 동발, 석탄 올려 싣기, 콤베아 옮겨 놓기 등 순서에 따라 한 시도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끼니를 잃고 달라붙어 일을 했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6백 톤이 아니라 820 톤의 석탄을 캐냈답니다.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 반원들은 수상님께서 오시였던 지난 3월에 끝끝내 한 채탄장에서 1만 톤 이상의 석탄을 캐냈던 것입니다.

리 승환 형님은 지난 8월에 공화국 로력 영웅이 되였어요.

지금 리 승환 형님은 로력 영웅이 된 영예를 빛내이면서 회암갱을 천리마 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 가고 있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직한 리 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형님들은 민청 창립 15주년을 맞으면서 더 빛나는 로력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어야 한다

내가 민청원으로 되는 그 날은 나에게 있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나는 때로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하여 본답니다. 푸른 맹증을 받는 날 6년간 소중히 매고 다니던 붉은 넥타이를 풀 것이고 다음은 세 줄기의 불'길이 타 오르는 소년단 휘장을 달던 앞 가슴에 영예로운 민청 휘장을 달고…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나의 가슴은 마냥 뜁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늘 훌륭한 민청원이 되려면 먼저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슬기로운 아동 혁명단의 모범을 따르며 본 받기 위하여 혁명 전통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과 반에서 주는 위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해냅니다.

한편 나는 항상 민청 형님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리 수복 영웅과 박 원진 영웅은 항상 소년단 사업에 모범이였고 무슨 일이 있던지 그날 일은 밤을 세워서라도 그 날로 꼭 해 놓고야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단에서 이 처럼 훌륭히 자랐고 당의 후비대인 민청에서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며 자랐기에 그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몸으로 적 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용감히 싸우는 주 성월 로력 영웅, 길 확실 로력 영웅들의 업적도 배우고 뒤따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성진 제강소에 가서 로력 영웅 안 상조 아저씨와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웅 아저씨와 리 영춘 형님을 따라 쇠'물을 뽑는 용광로에 가서 민청원 형님들이 쇠'물을 더욱 짧은 시간에 녹이기 위해 땀 흘리며 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 나는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한 민청원 형님들이 어떻게 자기의 힘과 지혜를 사회주의 건설에 바치고 있는 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열심히 학습하는 한편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어떠한 조직인가》, 《어떤 사람이 민청원으로 될 수 있는가》,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 등을 학습하면서 민청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소년단 조직 생활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북 김책시 쌍암 중학교

렴 원자

우리의 《꼬마 공장》 구경하세요

아마 동무들이 우리 학교 《꼬마 공장》에 와 본다면 놀랄거예요.

우리 학교 《꼬마 공장》은 우리들이 이곳 철도 공장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아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으로 만들어 낸 선반, 볼반을 비롯하여 8대의 기계들과 야장'간, 톱, 대패 끌들이 즐빗하여 제법 공장 같지요.

크루쇼크의 날이면 목공, 철공 크루쇼크별로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만들어 보고 익혀 보면서 지식을 넓고 깊게 다져 나가지요.

이번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과 그를 실행하기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1차 전원 회의 결정을 학습하고 의논한 다음 부터 우리 크루쇼크 사업은 더욱 활발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꼬마 공장》을 보기로 합시다.

함남 리원군 라홍 중학교 송 림숙
사진 촬영 리 종록

① 우리는 기하와 제도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이제는 복잡한 실습용 도구와 선반기까지도 제법 설계하게 되였지요.

② 리 완익, 전 승일 동무들이 설계를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지요. 우리 목공 크루쇼크에서 주물과 단야에서 쓸 목형을 짜 주어야 철공 크루쇼크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③ 똑딱 똑딱! 야장'간에서는 선반에서 깎을 부속들을 만들지요.

④ 쇠'밥이 타래져 나올 때면 《꼬마 공장》 선반공이 된 기쁨은 끝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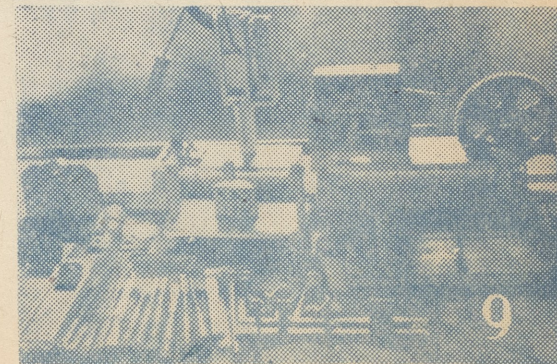
⑤ 처음 우리의 《꼬마 공장》에는 아주 작은 볼반과 선반들만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솜씨가 늘어 감에 따라 우리의 《공장》 설비도 늘어 갔지요. 이번에도 우리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1차 전원 회의 결정을 학습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것보다 더 큰 볼반을 만들어 냈답니다.

⑥ 선반과 볼반에서 깎고 뜯은 부속품들은 구라인다에 잘 갈아야 되지요.

⑦ 우리가 선반으로 내경을 깎을 때면 아직 기술이 어려서 자주 테파(경사)가 져서 오작이 많이 나지요. 그럴 때면 철도 공장 선반공 아저씨들을 찾아 가 물어도 보지요.

⑧ 우리는 금년에 실습 공장에서 6대의 선반을 새끼 쳐 여러 학교들에 보내 주었고 실습 공장의 설비도 늘쿠었지요. 그리고 꺾쇠와 못을 만들어 건설장 아저씨들에게 보내 올리기도 하였답니다.

⑨ 학교의 물리 화학 실험 실은 《꼬마 공장》에서 만든 실험 기구와 도구들로 가득 차 있지요.

우리가 금년에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만든 것은 천평을 비롯하여 대패, 끌, 마치, 메스, 핀셋트 등을 비롯하여 스물 네가지나 되지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학과 학습과 실험 실습을 도와 주지요.

우리는 피리라《붉은 꽃봉오리》로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한
평양시 동대원 구역 대신 중학교 제 15분단에서—

글 김 준규　　　　사진 김 창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분단 교실에 들어 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구호를 읽습니다.

15분단 동무들은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힘써 《모범 분단》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닐 것을 결의하여 나섰습니다.

키도 자랐지만 마음은 더 자랐구나

인민반 4학년 때 였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가?》

《숙련이에게 맡기자》

분단 위원인 윤 영옥이와 2반 반장인 전 금순이는 늘 이렇게 반 일을 의논 했습니다.

3학년 때 부터 금순이네 반 일은 분단에서 제일 잘 되는 편이였답니다.

《금순이는 반 일을 참 재미있게 해.》 다른 반 동무들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후 분단 위원 선거 때 분단 동무들은 금순이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분단 동무들이 막 박수를 치며 찬성하는 바람에 금순이는 어쩔줄 몰라 이렇게 혼자'말을 했습니다.

금순이는 첫 위원회에서 분단 위원장으로까지 됐습니다.

그때 영옥이의 얼굴은 어쩐지 빨개졌습니다.

《옥자가 딴 학교에 갔으니 이번에는 내가 분단 위원장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오던 영옥이였으니까요. 영옥이의 이런 마음을 모른 금순이는 전에처럼 그와 분단 일을 의논하군 했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알지 내가 아니?》

그때마다 영옥이는 이렇게 쌀쌀하게 말하고 돌아 서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영옥이와 멀어지는 것이 금순이에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랐습니다.

생각 끝에 금순이는 분단 위원들과 속을 털어 놓고 의논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으면 다 얘기해 주렴아》 금순이는 이렇게 울상이 되여 말하면서 분단 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실을 다 털어 놓았습니다.

금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분단 위원들은 저마다 분단 동무들 앞에서 선거된 후 한 일을 생각해 보고 마음 먹고 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연옥인 그전 보다 분단 일에 왜 재미 없어 하는지 모르겠어》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빨찌산 아저씨들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서로 도와주고 잘못을 타이르면서 모든 것을 혁명의 리익에 바쳐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단 위원인 유 옥신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난 참 나쁜 마음을 가졌어.》

영옥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오해하고 있던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은 후 한 마음이 된 분단 일은 척척 잘 되여 나갔습니다.

올해에 분단 동무들은 모두 중학생이 되였습니다.

금순이는 또다시 분단 위원장으로 되였고 영옥이는 벽보 주필이 되였습니다.

《넌 나 보다 더 크게 자랐구나》

《키 보다 마음은 더 자랐지 뭐, 그 땐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몰라》

어느 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두 동무의 분단 일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이런 정다운 말도 오고 갔습니다.

길 확실 언니의 모범을 따라

《우리 분단도 길 확실 언니네 작업반처럼 되게하자.》

분단 지도원 성생님에게서 전국 천리마 작업반 선구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 내용을 들은 날 분단 동무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분단 독보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네 번씩이나 분단 동무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 확실 2중 천리마 작업반 언니네들 처럼 분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가 있은 후 어느 날 아침이였습니다.

4반 반장인 리 보화 동무가 꽃 무늬 간 보자기에 무엇인가 커다란 걸 싸 안고 교실로 들어 서는 것이였습니다.

《얘 그게 뭐니?》하고 동무들은 보화를 둘러 싸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보화는 아예 풀어 보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동무들은 자꾸만 풀어 보자고 졸랐습니다.

다만 4반 동무들 만이 서로 눈 웃음을 보내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금순이가 들어 오니 그제야 보화는 보자기를 풀고 커다란 거울을 내 들었습니다.

4반 동무들이 파철을 모아 수매 시킨 돈으로 사 온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서 붉은 넥타이를 바로 잡고 머리 우에 올려 놓은 붉은 리봉을 만져 보며 방긋이 웃어 보는 분단 동무들을 볼 때면 4반 동무들은 자기들이 분단을 위하여 한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은 날마다 꼬리를 물고 일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6개 반 동무들이 상학 시간 보다 한 시간 전에 똑 같이 분단 교실에서 만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반 동무들은 먼지 털개와 비를 들고 있었고, 다른 반 동무들은 모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 마다에서 저마다들 이렇게 일찍 나와 교실 소제를 하자고 의논 했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제일 거리가 먼 장춘동, 등매동, 장진리 동무들도 지각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걸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잉크 방울 하나 떨굴세라 항상 깨끗이 닦습니다.

이리하여 분단 교실 소제 당번이 없어진 것도 이 분단 동무들의 자랑'거리의 하나로 되고 있답니다.

뒤 떨어진 동무를 이끌어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과 언니들의 모범을 따라 서로 앞을 다투어 분단이 할 일을 찾아 하는 분단 동무들에게는 못해 낼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드디여 지난 11월 2일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분단 앞에는 무엇 보다 공부를 잘 해야 할 일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락제를 한 리 금자 동무가 금순이네 분단에 오게 되였습니다.

《금자의 공부 성적을 높이자》 분단 동무들은 모두 이렇게 나섰지만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 학교에 온 금자는 한 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금자의 머리 속에는 공부를 게을리한 뉘우침과 학교에 다닐 걱정이 뒤 섞였습니다.

그래서 금자는 학교에 오지 않고 자주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로 잡는다

놀러 다니군 하였습니다.

한번은 분단 위원들이 모두 금자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이때 금자의 어머니는 직장에서 돌아 오지 않고 금자가 저녁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또 무슨 핑계를 대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자의 일을 도왔습니다.

물도 깃고 탄 불도 피워 주고 그릇까지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금자는 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꼬왔으나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이 달에 분단에서 하기로 의논 했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배움의 첫걸음》에 대한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금자네 집에서 했습니다.

금순이가 먼저 무엇 때문에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그 처럼 어려운 행군 때에도 앞 사람의 배낭 뒤에 큼직하게 글을 써 붙이고까지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분단 동무들도 모두 너 때문에 애 쓰고 있지 않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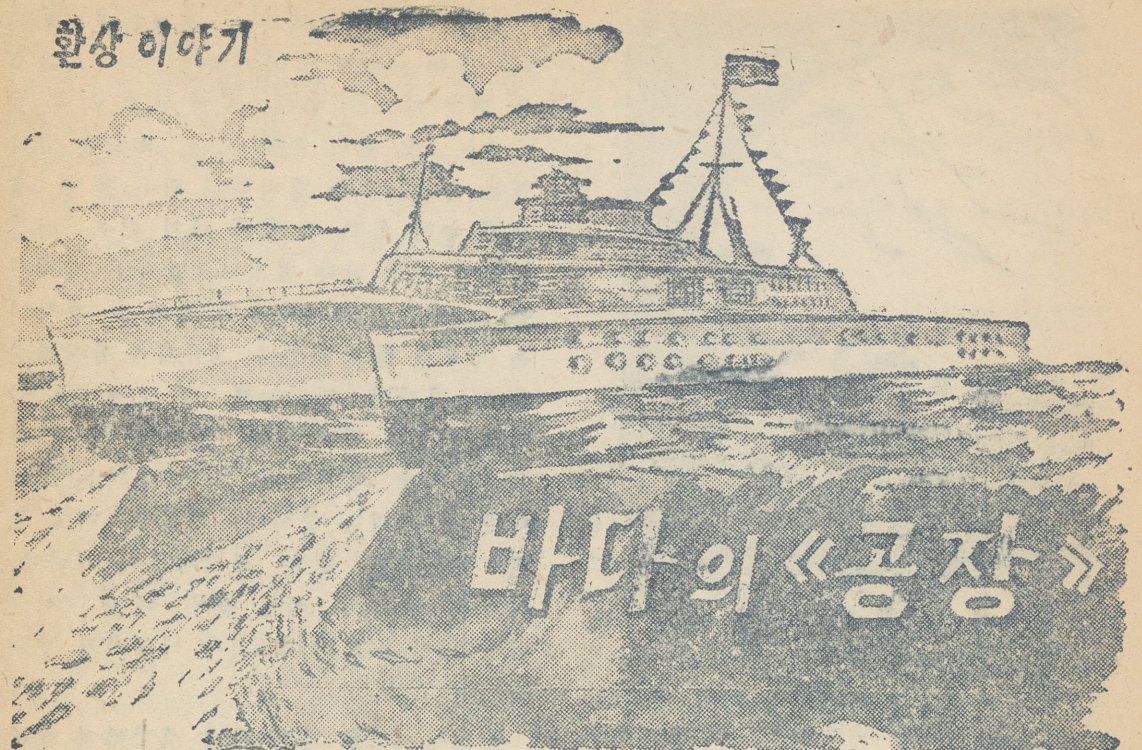
금자의 곁에 다가 앉으며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자의 산수 공부를 위원인 김 려정 동무가 도왔습니다.

려정이는 금자와 공부를 하다가 모를 것이 있으면 최우등생인 전 금순, 류 옥신이네 집에 데리고 가서 배워 주군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산수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최우등생들의 경험을 듣는 모임에 빠짐 없이 참가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금자의 산수 성적은 나날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전 분단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가 우리 소년단원들이 보도록 지정해 준 영화인 《붉은 꽃봉오리》에 대한 감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금자와 함께 분단 동무들은 만옥이와 윤해처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믿음직한 《붉은 꽃봉오리》로 자랄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글 김 환　　그림 오 영복

꿈'결에서 깨여 난 승호는 유리 창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맑은 아침 공기를 담뿍 들이키는 것이였다.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은 수산 과학 연구소의 대리석 건물들이 웅장한 제 모습을 들어 내기 시작한다.

이 연구소는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커서 유명하다.

승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어로 전문가이고 어머니는 수산물 가공 연구사이다.

승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수산 과학 연구소와 조선소의 과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오래'동안 집체적 연구를 해 오던 끝에 마침내 몸뚱이가 둘로된 큰 종합 어선 《바다의 공장》을 만들어 냈다.

몸뚱이가 둘로 된 이 종합 어선의 한쪽 켠에는 고기 떼를 찾아 내는 어군 탐색 실과 고기를 퍼 올리는 큰 뽐프 실이 있다.

다른 한쪽 켠에는 훌륭한 기계들로써 갖추어져 있는 물'고기 가공 실이 마련되여 있다.

배는 여러 층으로 되여 있다.

이 배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훌륭한 대형 어선이다.

이 배는 고기 잡이를 위해 탐색으로부터 물'고기의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바다의 공장》이라고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곧 《바다의 공장》은 처음으로 고기 잡이에 떠나게 된다.

《아버지! 나도 바다로 갈래요.》

하고 승호는 바다로 떠나 갈 준비에 바쁜 아버지한테 졸라댄다.

《너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니? 산'더미 같이 밀려 드는 파도며 온통 가는 곳마다 물인걸… 아이들은 못가!》

하고 승호의 용기를 띠고듯이 아버지는 빙긋 웃으시였다.

승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가게 되였다.

《어머니! 먹을 것은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승호가 무슨 잊었던 것이나 생각 난 것처럼 어머니에게 말했다.

《응, 네가 좋아하는 물'고기 통조림들은 가지고 안가도 된단다. 바다에 나가면 무진장이야》하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한다.

바다에 나가면 무진장하다는 바람에 승호는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그럼 바다에 통조림 공장이 있단 말인가?》 승호는 한편 이상스럽게도 생각하였지만 가보면 알테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라섰다.

…이윽고 심해에 나간 《바다의 공장》은 고기 잡이를 시작했다. 승호는 배안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굴레 벗은 송아지마냥으로 온 배'간을 좁다하듯이 히줄거리며 돌아 다니는 판이였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다. 그는 이것저것 신기하게 여겨 보다가는 뛰쳐 나오군 한다. 배의 앞코 쪽에 간 승호는 7호 실에 들어 갔다. 깨끗한 방안에는 두 개의 큰 텔레비존 같은 것이 상우에 놓여 있고 그 앞에 나이 젊은 아저씨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재미있는 그 무엇을 보기라도 하듯이 그 장치에 온 정신을 팔고 있였다. 《아저씨 텔레비존 방송 시간이 멀었는데 뭘 보시나요?》 하고 승호는 괜히 앉아 있다는 듯이 아저씨들에게 말하였다. 《응 우리는 고기떼를 찾아 내는 중이지, 이것은 너희 집에 있는 것 같은 텔레비존이 아니야, 이것은 물고기 떼를 찾아 내는 〈어군 탐색경〉이란다.》하고 기사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였다.

승호는 《어군 탐색경》을 신기하게 들여다 본다. 물'고기들이 두 마리, 일곱 마리, 꼬리를 물고 줄 지어 지나더니 드디어 큰 고기 떼들이 나타났다.

승호는 나중에 아저씨들을 통해 안 것이지만 《어군 탐색경》은 사람에게 비하여 말하면 눈인 것이다. 이것은 배의 앞 부분의 탕 옆에 붙어 있는데 그 곁에 수중 탐색등이 달려 있다. 물 속에서 탐조등을 켜면 고기 떼가 텔레비존 영사막 같이 되여 있는 탐색경에 나타나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전에 쓰던 어군 탐색 기구들보다 더욱 발전된 것이다.

잘 알았다는 듯이 승호는 손을 들어 소년단원 인사를 하고 나왔다. 승호는 다시 황새 걸음으로 배 뒤 쪽에 갔다.

그 곳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다.

기계공 아저씨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는 사람이라도 기여 나들 수 있으리만한 큰 철판들을 잇대여 놓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철판의 한쪽 끝을 기중기로 바다 속에 집어 넣고 다른 한 쪽 끝은 뽐프실에 잇대여 놓았다.

아버지는 전기 스위치를 넣였다. 큰 뽐프가 보기 무섭게 돌아 간다.

이윽고 물이 올라 오자 물'고기들이 쉬여 뽐프를 통해 고기'간으로 운반된다. 뽐프실에 올라 온 물은 하수도를 통해 배의 옆구리로 흘러 나간다.

물'고기들은 쉴 사이 없이 뽐프에 빨리워 배에 담아진다.

뽐프실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이 손을 들어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친다.

이리하여 그물로 고기를 잡던 력사도 옛말로 되고 말았다.

《승호야! 빨리 어머니한테로 가자, 이제는 성공했어!》

하고 승호의 손목을 틀어 잡은 아버지도 배의 건너 편 쪽으로 뛰여 갔다.

어머니는 가공실에서 고기가 들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젠가 이젠가하고 기계 상태를 살펴 보면서 서 있었다.

이윽고 넓직한 고무 띠를 타고 고기들이 줄지여 들어 온다.

흰 위생복을 입은 승호의 어머니는 조종대의 단추를 눌러 놓았다. 송곳같이 뾰족한 칼날로 된 활복 칼이 내려 오면서 고기의 배를 몇물어지게 째 준다.

다음 공정은 고기들의 내장이 갈라져서 따로 따로 세척장에 운반되여 깨끗이 목욕이나 한듯이 씻기운다.

깨끗이 씻기운 물'고기들은 다음의 기계실에로 운반된다.

승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다음 가공 실에 갔다.

《야! 통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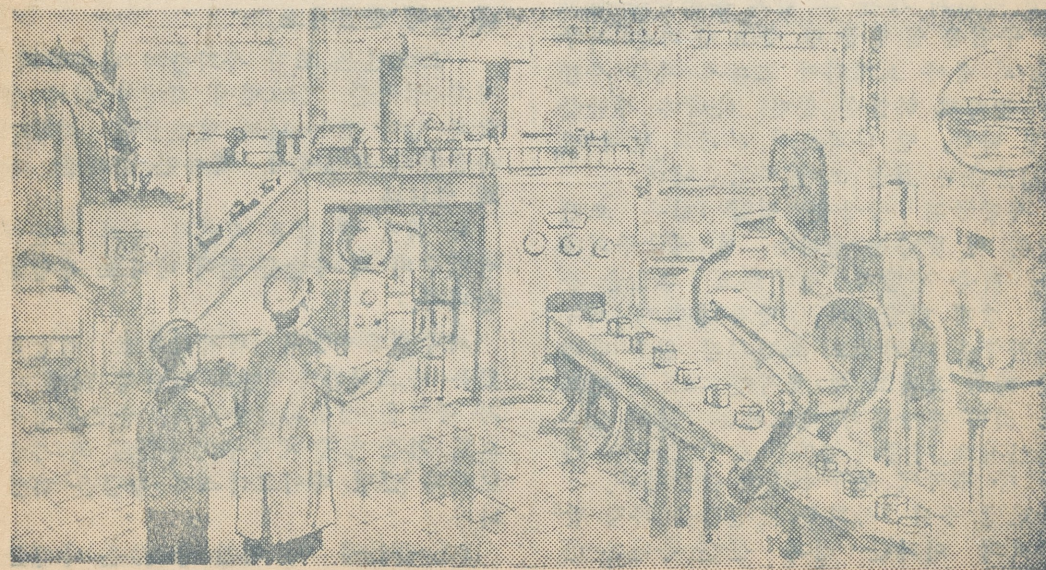
하고 승호는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쁜듯이 소리를 질렀다.

《얘 승호야! 이것이 바로 〈바다의 공장〉이란다. 너희들은 앞으로 바다의 개척자로 더 크고도 위대한 일을 해야 해. 바다의 일터는 광활하지!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3억 6천 1백만 평방 킬로메터나 물에 뒤 덮여 있단다. 이는 지구 총 면적의 71%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바다는 넓은 일터란 말이다. 벌써 여름 방학도 거의 지나 가고 이제 곧 새 학년도가 시작될 터인데 공부를 잘하여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해야 해.》

승호는 잘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벌써 잡은 물'고기와 통조림들을 날따갈 운반선들이 《바다의 공장》으로 다가 선다.

몸통이가 두 갈래로 된 큰 종합 어선 《바다의 공장》은 계속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낼 것이라고 한다.

한해 동안에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글 박문성　그림 전의남

1960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1960년! 돌이켜 보면 이 해는 실로 쏘련을 선두로 한 우리 사회주의 진영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더욱 멸망의 구렁으로 빠져들어 간 해였습니다.

이 해에 쏘련은 1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다계단 탄도 로켓트를 태평양의 목표구역에 쏘아 보냈고 5월과 8월, 12월에는 련이어 제 1, 제 2, 제 3 우주 비행선을 띄워 보냈습니다. 특히 둘째번의 우주 비행선은 두 마리의 개와 그 밖의 동물들을 싣고 지구 주위를 열 일곱 번 돌고 난 다음 지구상에 되 돌아 오게하여 또다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별 나라, 달 나라로의 려행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 넘은 쏘련 과학의 이 빛나는 성과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까맣게 멀구었고 그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당황해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도 쏘련처럼 우주 비행선을 띄워 보려고 애 썼지만 그것은 이도 안난 것이 콩밥부터 먹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였지요. 미국의 《우주 로켓트》들은 련거퍼 땅 바닥에 곤두박질만 쳤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회주의 진영은 과학 발전에서의 아려한 성과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라의 공업 총 생산 액은 1956년에 비해 3,5 배로 늘며 쏘련은 금년 첫 9개월 기간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 루블리나 더 많은 공업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쏘련 공업 제품 생산량은 오늘 영국, 불란서 및 서부 독일의 것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중국도 금년 첫 8개월 동안에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40% 이상이나 더 많은 강철, 선철 및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밖의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모두 생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떨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아이젠하워는 1960년이 미국에서 《번영의 해》로 될 것이라고 지껄였으나 그것은 헛소리였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의 공업 생산은 1월에 비하여 훨씬 떨어졌습니다. 더우기 미국의 강철 생산량은 금년 1월~6월까지 기간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3만 5천 톤이나 줄어 들었지요.

1960년은 또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식민지 나라 인민들과 압박 받는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해 입니다.

이 해에 수 많은 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식민주의 쇠 사슬을 끊어 버리고 독립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만도 금년에 16개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중근동에서도 오랜 기간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쇠 사슬에 얽매와 있던 싸이프러스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이처럼 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한 것은 오늘 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썩은 담벽처럼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학대와 멸시와 략탈을 당하던 식민지 인구가 2차 대전 전에는 무려 15억이나 되였으나 이미 거의 다 해방되고 오늘 남아 있는 식민지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식민지 나라 인민들도 날로 더욱 억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성원을 받는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 합니다.

또한 금년은 미제의 침략 정책이 가는 곳마다에서 실패했고 그의 앞잡이 놈들이 련이여 꺼꾸러진 해로 되였습니다.

4월에 우리의 영웅적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앞에서 미제의 앞잡이 리 승만이가 쫓겨 난 뒤를 이어 5월에는 토이기에서 리승만과 같은 매국노였던 미제의 앞잡이 멘데레스 (토이기 수상이였다)라는 자가 꺼꾸러졌고, 6월에는 일본에서 미제와 침략적 일미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은 기시 노브스께(일본 수상이였다)가 일본 인민들의 투쟁에 못이겨 물러 났으며, 8월에는 라오스에서 또한 미제의 앞잡이 솜사니트(라오스 수상이였다)라는 자가 라오스 군대들의 폭동에 의하여 타도 되였습니다. 11월에는 남부 월남에서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 느고 딘 디엠(남부 월남 괴뢰 대통령)도당을 반대하는 군대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느고 딘 디엠은 미제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 남기는 하였으나 그가 꺼꾸러질 날도 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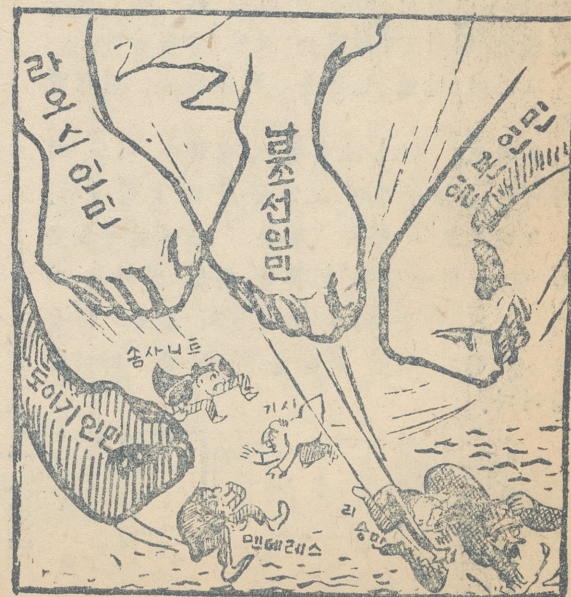
작년 1월에 미제의 앞잡이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뒤집어 엎은 큐바는 금년에 들어 와서 이전에 바티스타가 맺었던 미국과의 군사 조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오래'동안 큐바 인민의 피땀과 재물을 빼앗아 가던 미국 놈들의 공장 기업소들과 회사들을 모조리 몰수하여 큐바 인민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과테말라에서도 미제와 그의 앞잡이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이 맹렬히 일어 나고 있으며 가는 곳 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미제는 금년에 5월과 7월에 두 차례씩이나 쏘련 하늘에 간첩 비행기를 띄워 보냈습니다.

또한 미제는 콩고가 독립하자 벨기 식민주의자들을 시켜서 콩고에 무력 침공을 하게 하였으며 콩고 인민들의 독립을 도로 빼앗기 위하여 계속 날뛰고 있습니다. 큐바를 반대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 간섭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행기로써 큐바의 사탕, 수수 밭을 폭격하는 등 갖은 흉악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미제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발악을 한다해도 미제는 온 세계 인민들의 투쟁 앞에 멸망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낼가요

리 창수

동무들이 손 꼽아 기다리는 겨울 방학은 닥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방학을 즐기는 동안 우리의 근로자 아저씨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찬란한 성과를 이룩한 1960년을 총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한번도 있어 보지 못한 7개년 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또한 민청 창립 15주년 기념일도 겨울 방학 동안에 맞이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방학 기간은 우리 부모 형님 누나들에게 있어서 아주 보람찬 기간이지요.

그러므로 지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우리도 방학을 보람차게 지내도록 단과 분단 위원회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방학에도 선생님들이 강습에 많이 참가하게 되므로 고향에 돌아 오는 대학 및 전문 학교와 공장 농촌 형님 누나들의 지도를 받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가요.

첫째로, 우리 소년단 단체들은 어느 때 어디서나 공산주의 교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학 동안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 혁명 단원들의 붉은 마음을 본 받기 위한 학습을 더욱 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방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지도하에 민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을 깊이 연구하고 항상 당과 혁명에 충실한 민청원 형님들처럼 생활하도록 힘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새로운 결정들, 특히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당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그리고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계속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과 분단들에서는 《만경대》,《아동혁명단》, 《새 아동에 대한 이야기》 등을 모든 동무들이 읽도록 지정해 주며 《영광스러운 우리 나라》《아름다운 우리 조국》, 《조국 통일의 휘황한 앞길》, 《민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을 내용으로 하는《연구 발표 모임》《이야기 모임》 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림 극을 만들어 분단 또는 반동무들이 다 모여 감상하고 발표하거나 그림을 한장씩 나누어 주어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여 말하는 솜씨도 키웁시다.

그리고 혁명 전적지, 박물관,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들을 견학하고 감상 모임을 가지며 전투 영웅, 로력 영웅 아저씨들과의 상봉 모임도 조직하여 그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많은 것을 배웁시다.

둘째로, 단과 분단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1 학기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며 실험 실습을 통해 더욱 깊게 알도록 하며 학교에서 내 준 과제를 꼭꼭 잘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락 또는 아빠트 단위로 학습조를 조직하여 복습과 예습을 잘 하여야 합니다. 특히 뒤 떨어진 소년단원들은 우등, 최우등생들이 잘 도와 그들의 성적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습 공장, 실험 실을 중심으로 목공, 철공, 수예 등 여러 가지 크루쇼크 활동을 잘 하며 공장, 기업소, 농목장에 대한 견학도 조직합시다.

그리고 로력 혁신자, 과학자, 기술자, 작가, 예술인 아저씨들을 모셔다가 《어린 과학자 모임》, 《어린 력사가 모임》,《어린 문학가 모임》들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공작 크루쇼크들에서는 새로운 교편물과 실험 기구들을 만들며 책상, 걸상을 고치며 어린 동생들의 놀음'감을 만드는 등 재간 있는 솜씨를 키우는 일을 많이 합시다.

세째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문화 휴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부락 또는 반별로 아침 체조와 달리기를 진행하며 소년단원들이 가장 즐기는 설상 행군, 스키, 스케트, 썰매 경기와 눈싸움 등 유희를 잘 조직합시다. 설날에는 반 또는 분단 별로 되는 체육 대회도 조직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와 춤을 보급하며 연예 써클 발표회, 시 랑송 모임들도 자주 조직합시다.

단에서는 《설맞이 모임》을 잘 준비하여 춤과 노래로 설날을 흥겹게 보냅시다.

네째로, 《파마 완충기 계획》 활동을 잘 총화 지으며 《소년 선전 예술대》의 활동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구락부와 민주 선전실에 자주 나가 농촌 군중 문화 사업을 힘껏 도우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게 군중 무용과 혁명 가요들을 많이 배워 드립시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에 찾아 가 위안 공연도 조직 합시다.

설상 행군과 함께 산 짐승 사냥을 조직하여 털과 가죽을 모아 나라에 바치는 유익한 일도 조직합시다.

그리고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는 일도 잊지 말아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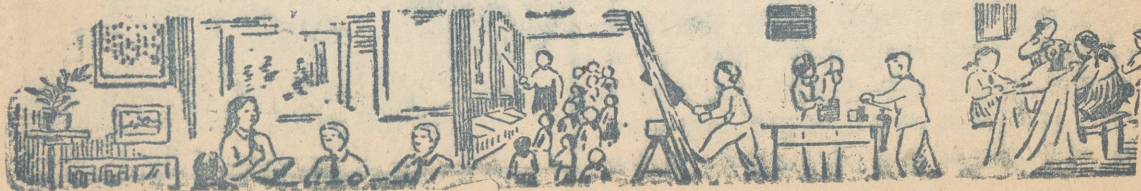
이런 재미 있고 보람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자면 반과 분단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때문에 단과 분단 위원회들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 내용과 소년단 규정 내용들을 한 조목씩 다시 잘 학습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분단 총회와 위원회를 계획된 대로 꼭꼭 가지며 방학 동안에 하기로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잘 되여 가는가를 알아 보고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락 반 별로 속보판을 만들어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대로 잘 생활하는 소년단원들을 자주 소개하여 모든 동무들이 그들의 모범을 본 받도록 합시다.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우리 나라 각지의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아저씨들의 모범을 따라 많은 소년단원들이 《모범 분단》칭호 쟁취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이 운동에 나서며 자기들이 다진 결의들을 훌륭히 실천하여 모두가 《모범 분단》의 영예로운 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힘써 나갑시다.

올해 통신원들의 역할은 컸다

잡지《소년단》은 소년단원 동무들의 사랑 속에 자랑찬 한해를 보냅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많은 통신원 동무들이 잡자《소년단》의 재미 있는 고정 란들인《우리의 무선 통신》,《행동의 거울》,《유쾌한 구라부》를 편집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해 동안 통신원들이 써 보낸 수 많은 통신 원고들 가운데는 조선 로동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 학습을 잘 하여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혁명 정신과 아동 혁명 단원들의 모범을 따라 학습과 소년단 생활 속에서 피여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5호에 실린 개성 지구 판문군 판문 고중 (그전 이름)통신원 허 광순 동무가 써 보낸《꽃주머니》는 참 좋았습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동무들이 오 준자 동무 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여러가지 소식을 편집부에 보내 왔습니다.

《행동의 거울》은 많은 통신원들이 써 보낸 원고들로서 학교와 거리,공원,영화관, 병원, 극장, 길'가에서 소년단원들이 한 아름다운 행동과 마음을 비쳐 주었습니다.

황해 남도 옹진군 만진 중학교 통신원 박 봉녀 동무는《청산리 아저씨들 처럼 배우며 일한다》외에 여러 통의 통신 원고를 보내 왔습니다.

그중에서《겨울에 먹일 토끼 풀을 마련해요》.(10호에 실음)는 토끼의 겨울 차비를 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철산 중학교 통신원 림 창범 동무는 거이 30통에 가까운 원고와 함께《〈소년단〉통신원의 역할을 더 잘 하겠어요.》(10호에 실음)까지 보내 왔습니다.

함남 함주군 풍동 중학교 3학년 리 정자 동무는《토끼 풀》,《검열에만 쓰는 손수건》등의《웃음 주머니》를 써 보내여 우리 독자들의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독자 여러 동무들과 통신원들이 써 보낸 수 많은 원고들을 다는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리지 못한 통신 원고들도 다 우리 잡지《소년단》을 더 재미 있고 알기 쉽게 편집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동무들의 잡지《소년단》에 독자 여러 동무들과 통신원들이 써 보내는 글을 더 많이 실어 보다 더 내용 있고 재미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통신원들은 새해에 더 좋은 통신 원고를 많이 써 보내기 위하여 우리 당의 정책과 민청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잘 학습하며 공부와 소년단 생활에 누구 보다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새해에 통신원들은 혁명 전통 연구에서 얻은 경험 및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단과 분단 반들에서 위원들과 소년단원들이 하고 있는 재미 있는 소식들을 자주 전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가지 크루쇼크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도 좋습니다.

독보원들의 활동과 그때 그때의 우리 당의 정책을 받들고 근로자 아저씨들처럼 유익한 일을 하여 나라에 도움을 주는 소식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새해에는 우리 나라 각지의 많은 분단들이《모범 분단》칭호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잡지《소년단》에 제때에 실어 우리 나라의 모든 분단들에서《모범 분단》칭호를 쟁취 하도록 도와 주는 일은 우리《소년단》편집부와 함께 통신원들이 새해에 할 큰 일입니다. (편집부)

오 은 렬

나오는 사람들

새해……………………………귀여운 소년
아저씨…………………………1960년
삼돌……………………………초중 2학년 남학생
삼녀……………………………초중 2학년 녀학생
철주……………………………초중 2학년 남학생
순란……………………………초중 2학년 녀학생
일남……………………………초중 1학년 남학생
기타 여러 동무들

무대

설날의 학교 강당. 공화국기와 테프로 장식된 실내 복판에는 하얀 눈을 담뿍 인 푸른 소나무 한 대가 서 있는 데 여러가지 색 전등들과 그림딱지들 그리고 작은 인형들과 각종 모형들 (자동차, 뜨락또르, 비행기 기타 공작품들)이 매달려 있다.

막이 오르면 빛나는 옷차림을 한 (가끔 옷사이로 가슴에 새긴 1961년이란 글'자가 보인다) 재해 동무 소나무 밑으로 나온다.

△1960년 아저씨가 누구를 찾듯 두리번거리며 나온다.

△ 새해 얼른 몸을 숨긴다.

아저씨—옳아! 여기가 바로 씩씩한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인 꼬마 기술자 들이 자라는 ○○ 중학교 (자기 학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로구나, (두루 살피며)거 참 ! 훌륭하게 차려 놨는데… 히야! 참 이 학교 소년단원들의 솜씨가 아주 대단하거든, 그러길래 새해도 이리로 온다지, 새해는 아마도 씩씩하고 믿음직한 해일께지,

새해 (소나무 밑에서 불쑥 나서며) 1960년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아저씨—오! 1961년, 기다렸어! 이 마음은 나쁜 아닌 전 조선 인민의 마음이네 (굳게 손을 잡아 흔들며)

새해 1960년 아저씨 그 동안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저씨께 못지 않게 힘껏 일할 각오입니다.

아저씨—훌륭하네,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1961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 인민들은 벌써부터 1961년에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지!
빛나는 7개년 계획의 첫 봉우리로 오르기 위해서…

새해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는 벌써 자신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제가 이 학교를 찾아 온 것은 래일을 이어 나갈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인 우리 동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지요.

아저씨—참 잘 찾아 왔어! 나도 실은 새해가 반드시 이리로 올 것을 알고 찾아 온거지, 나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걸 이 책에 (크고도 두툼한 책을 꺼내어 벌깍 벌깍 뒤지며) 하나 하나 다 적어 두었거든, 이제 마지막 총화나 짓고서는 새해 동무에게 이 책을 인계해 주지.

새해 네 고마워요. 허지만 나는 그 소년단원들과 직접 사귀여 봤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그렇지, 그렇지… 직접 사귀여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가만… 그럼 어

명케 한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군.

새해 어떻게요?

아저씨— 동무는 마치도 다른 학교에서 초대되여 온 보통 손님 처럼 하구 있으란 말야. 이걸 가리워야지(1961년 글자를 옷으로 가리워 주며)

새해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저씨— 나는 이 소나무 뒤에 앉아서 1년간의 총화를 짓고 또 그 애들이 새해의 결의를 어떻게 다지는가 하는 걸 적어서 동무에게 넘겨 주어야지.

새해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저씨— 자 그럼 나는 이 소나무 뒤에 들어가 있을테니 모를게 있거들랑 물어 보게.

새해 네.

△삼돌이와 삼녀가 나타난다.

새해 안녕들 하십니까?

삼녀 아니? 너는 누구냐?

새해 나는 오늘 이 학교 설맞이 모임에 초대 받고 온 소년단원이예요.

삼돌 음— 그래? 어느 학교에서 왔어? 응

새해 해방 중학교에서 왔어.

삼녀 어때? 우리 학교 멋이 있지? 이제 기술 혁명의 계획인 7개년 계획의 첫해인 1961년 새해를 경축하는 우리 어린 기술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좀 봐, 너 기절하지 말라 응?

새해 어린 기술자들의 모임! 거 멋지겠는데

삼돌 멋지구 말구 이제 봐!

삼녀 삼돌이 너는 뭣을 준비 했니?

삼돌 나야 시를 준비 했지 뭘

삼녀 시?

삼돌 시 몰라? 시! (오! 아름다운 산천이여!) 이 것 말이야.

삼녀 그렇지만 오늘은 과학 기술에 대한 것을 발표하기로 돼 있지 않냐?

삼돌 아무거나 제가 제일 잘 하는 걸 내 놓으면 돼. 시를 짓는데두 기술이 필요하다 너.

삼녀 시를 짓는데두 기술이 필요하다?.

삼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자 내가 지은 시나 한 번 들어 봐. (호주머니에서 시를 적은 종이장을 꺼내 들고 읊기 시작한다) 푸른 하늘에 갈매기 나래치고 물 속 깊이 고기 떼들 꼬리치는데 바다 우에 두둥실 고기'배 떴네.

어때?

삼녀 너 크루쇼크 시간때면 슬쩍 빠지더니 시를 짓느라고 그랬구나?

삼돌 그 따위 소리 하지두 말어!

새해 (혼자'말로) 거 제법 《잘》 지었는데….

아저씨— (고개를 내밀고) 제가 지은게 아니란다. 책에 나온 걸 이것 저것 따다가 맞춘거야.

새해 하하

삼돌 너는 남의 시를 듣구두 왜 아무 말두 없냐? 너 아주 감정이 둔하구나

새해 참 기술적으로 잘—지었어요.

삼돌 그런데 잘 지었다는 그 잘—자가 어째서 그렇게 길어?.

삼녀 옌 별 걸 다 가지구 따지누나.

삼돌 삼녀야 넌 뭣을 준비 했냐?

삼녀 나야 본래 공식 박사 아닌가! <에이 쁘라스 삐 괄호 자승은 에이 자승 쁘라스 2 에이삐 쁘라스 삐 자승> 어때? 자 그리고 이 (소나무에 켜 있는 전등을 가리키며) 전기란 무엇인가? 전기에는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는데 양전기는 쁘라스요 음전기는 마이나스라고 한다.

새해 정말 공식 《박사》 구만!

아저씨— 그앤, 앵무새 처럼 내리 외우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모르는 애야

새해 역시 그럼 엉터리가 틀림 없군요?

삼돌 아니? 넌 뭘 혼자 중얼거리고 있냐?

삼녀 거기에 누가 있냐?

새해 아니. (시치미를 뗀다)

△ 많은 소년단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제각기 라지오, 변압기, 선풍기, 볼반 모형등 크루쇼크에서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나온다.

삼돌 너들 그건 어디서 난 거냐?

삼녀 (라지오를 만져 보며) 이건 어디서 샀어?

철주 우리가 만든 거지 뭐.

새해 이걸 다 동무들이 만들었어요?

철주 그럼! 이건 이앙기구, 이건 변압기 이건 자동 볼반…

삼돌 자동 볼반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철주 여기 모타를 설치하고 이렇게 피대만 감으면 자동적으로 아무 철판이나 다 구멍을 뻥뻥 뚫을 수 있는 거란다.

새해 (낮으기 찾는다) 아저씨 저 걸 정말 저 동무들이 만들었나요?

아저씨 —(나무 뒤에 숨은채로 대답한다) 그렇구 말구.

삼녀 아니 넌 구두약은 뭘 다 가지구 왔냐 여기서 뭐 구두를 닦을테냐?

순란 이건 우리 화학 크루쇼크에서 만든거야. 이건 우리가 만든 빨래 비누구.

학생 1 자 이건 우리 철공 크루쇼크에서 만든 개량 호미요!

학생 2 낫이요!

학생 3 제초기요!

학생 선풍기요!

철주 삼돌아 너는 뭣을 발표하려냐?

삼돌 난 시를 창작 했어.

철주 시?! 어디 한번 들어 보자.

삼돌 뭐 시시한 거야.

일동 어서 한번 읊어 봐, 어서!

새해 (삼돌이에게 다가가서) 어서 한번 읊어요 아까두 멋이 있게 읊구선 뭐. (종이'장을 몰래 집어낸다)

삼돌 정 요구가 그렇다면 한번 읊어 볼가 (호주머니를 뒤지다 종이'장이 없어서 당황한다) 아니? 이게 어디 갔어

순란 뭘 그러냐?

삼돌 내가 시를 쓴 종이가 없어졌어.

순란 그까짓 것 없으면 어때. 제가 지은 건데 머리 속에 다 있을게 아냐?.

철주 아 그럼 머 어서 읊어 봐.

새해 머리 속에 다 있을텐데 공연히 그러지며, 어서 한번 멋지게 읊어 봐요.

삼돌 그럼 내 읊을게 (잘 생각이 안 나서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푸른 하늘에 두둥실 고기'배 떴네.

철주 뭐 뭐 뭐야? 하늘에 고기'배가 떴어?

일동 와— (웃음을 터뜨린다)

삼돌 아냐 아냐 내가 혼돈 했어, (다시) 푸른 하늘에 갈매기는 나래치고 물속 깊이 고기'배는 꼬리치는데…….

순란 뭐 뭐? 물속 깊이 고기'배가 꼬리를 쳐?.

일동 와— (웃어댄다)

학생 4 너무 흥분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모양인데 머리 좀 식히게, 이 선풍기루 바람이나 시원하게 불어 줄가?

일동 (다시 웃는다)

순란 삼녀야 너는 뭘 준비 했냐?

삼녀 난 아무거나 다 척척 대답할 수 있게 준비 했지 머. 례를 들어서 이 전등으로 말하면 양전기와 음전기 즉 쁘라스와 마이나스가 합쳐서 불이 켜지는 것인데…

새해 또 그 소리구나

아저씨— (고개를 내밀고) 새해동무, 이 전등 스위치를 꺼 봐요

새해 (슬쩍 스위치를 뗀다)

△소나무의 색등이 꺼진다.

일동 아! 정전인가?

순란 아냐 이 소나무의 전등만 꺼졌어.

철주 고장이 났구나.

새해 삼녀 동무,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한번 고쳐 봐요.

삼녀 뭐? 나더러 고치라구?.

일동 음! 어서 고쳐 봐.

삼녀 (할 수 없이 가까이 다가가서 전기'줄을 만지다가) 아야야!

순란 왜 그러냐?

삼녀 짜릿짜릿 해서 그래.

일동 (웃는다)

일남 겁나 할 것 없어요.

삼녀 그렇지만…(얼굴이 빨개 주춤거린다)

일남 그럼 내가 고치지. (제깍 고친다 불이 온다)

철주 이 라지오도 거기다 련결 해 놓으라구.

새해 동무는 몇 학년이예요?

일남 (라지오를 련결 시키면서) 난 초중 1학년생이야.

새해 (삼녀를 가리키며) 이 동무는?.

일남 그 동무는 2학년생이지.

새해 그럼 거 꺼꾸루 됐는데…

철주 삼녀 동무는 공식만 외우구 실험 실습을 태공해서 그래.

새해 아 어째서 이 두 동무의 이름이 하나는 삼돌이구 하나는 삼녀인가 했더니 모두 다 3점 짜리가 돼서 그랬군요.

일동 (까르륵 웃는다)

철주 너는 참 재미 있는 아이구나. 우리 서로 친하자.

순란 그래 친하자!

아저씨 (소나무 뒤에서 나오며)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

일동 아! 1960년 아저씨다!

△모든 소년들이 1960년 아저씨 곁으로 달려 간다. 아저씨는 그들을 얼싸 안아 준다.

아저씨— 동무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무는 여러분과 함께 밤이나 낮이나 새움 트는 봄이건 햇별 따거운 여름이건, 단풍 곱게 물드는 가을이거나 눈 나리는 겨울이거나, 그 어느 때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가장 귀중한 벗이랍니다. 그 동무는 다름 아닌 저기 저 동무입

니다. 재해 1961년입니다!

일동 (환성을 울리며 재해에게 달려 가서 인사를 나눈다)

△재해를 맞이하는 환영곡과 함께 우렁찬 박수를 친다.

일남 쉬—조용들 하시오! 라지오가 울려 나옵니다.(라지오가 어린이 방송 시간의 신호를 알린다) 이게 누구의 솜씨냐? 에헴! 이 사람의 솜씨올시다.

일동 (웃는다)

아저씨— 너무 으시대다간 코가 깨질걸.

일남 저의 코는 조고마해서 깨질 나위도 없습니다.

일동 (다시 까르륵 웃는다)

△라지오에서 울려 나오는 방송원의 말—

어린 동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7개년 계획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질 1961년의 희망찬 재해 종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소년단원 여러분의 재해 결의는 무엇입니까?

일동 야! 재해의 종소리다. 우리 모두 김 일성 원수님께 설 인사 드리자(《설 인사 받으세요》 노래를 씩씩하게 부른다)

철주 얘들아 우리들은 재해에도 김 일성 원수님의 전사답게 서로 도우면서 혁명 전통을 더 잘 배우고 소년단 생활에도 더 잘 참가하자, 그리고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실험 실습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구,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7개년 계획 수행에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을 도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한 일들도 많이 하구, 그래 재해에는 《모범 분단》 칭호를 꼭 쟁취 해야 할게 아냐.

일동 그래! 물론 그래야지!

학생 1 나는 지난해 움직이는 뜨락또르를 만들었는데 재해에는 반드시 달리는 모형 함선을 만들어 낼래, 이렇게 파도를 가르며 나가는 말야(손 시늉을 하며)

학생 2 나는 뜨락또르 운전을 배울테야, 이제 소형 뜨락또르를 몰고 쏙—(뜨락또르를 운전하는 시늉을 한다)

순란 우리 가사 크루쇼크에서는 누구나가 다 아름답고 멋이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다 맛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낼테야, 그리하여 (마치도 어른 처럼) 여러분! 오늘 밤 설맞이 모임이 있은 후에 우리 가사 크루쇼크에서 초대하는 축하연에 다 같이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을 터뜨린다)

새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진 떳떳한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돼야 합니다!

일동 우리들은 누구나 다 꼭 그렇게 될 것을 맹세 합니다.

△라지오에서 행진곡이 울려 나온다.

아저씨— 재해 동무! 이 책을 받으시오. 이 책 속에는 이 동무들이 지난 한해 동안에 해 온 훌륭한 일들과 재해의 결의들이 다 기록 되여 있습니다. 자 보십시요 (벌꺽 벌꺽 뒤진다)
나는 그 결의가 반드시 실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김 철주—이 동무는 지난 봄 모내기 무렵 마을 협동 조합 보'둑이 터지는 것을 몸으로 막아 많은 조합 재산을 건져 낸 훌륭한 동무 이구,

최 일남—이 동무는 지난 여름 물에 빠진 어린 1학년생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한 동무이구요.

리 순란—이 동무는 《꼬마 왕충기 계획》 활동으로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을 보였지 한배에 열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고 어미 토끼가 죽었을 때 그 새끼들을 잘 키워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거든.

삼 돌이와 삼녀는 뭐더라, 삼돌이와 삼녀 공부는 좀 게을렀지만 례절에는 밝았지…. 이밖에도 이 책에는 이곳 학교 동무들의 붉은 마음을 자랑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두룩히 적혀 있습니다.

새해 고맙습니다. 재해에는 이 책에 가장 놀랍고 훌륭한 업적들을 가득차게 적어 두겠습니다.

아저씨 그리하여 먼 후'날까지 전하십시오

새해 네 (책을 받고서 전체 소년단원을 향하여) 꼬마 기술자 모엿!

△다들 줄을 지어 모여 서는데 삼돌이와 삼녀는 락심해서 서 있다.

새해 (삼돌이와 삼녀에게) 동무들도 이 대렬에 들어 서세요.

삼돌 삼녀 (기뻐 하며) 우리도 재해부터는 잘 하겠어요! (대렬에 들어 선다)

새해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천리마로 달리는 근로자 아저씨들을 따라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재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갓! (행진해 나간다)

△소년들 손을 들어 1960년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일동 1960년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오냐!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나가거라!

△라지오에서 소년단 행진곡이 울려 나온다. 일동 노래 부르며 퇴장.

—막이 내린다—

동요

옳지 옳지 알았다

산수 숙제 끝낸 어느날 저녁
모범 조합원 우리 아버지
싱글 벙글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
《로력일 구백이면 분배 몫이 얼마냐?》

그것도 못 풀가요, 참 아버지도
동무들은 날 보고 《산수 박사》라는데요
암산으로 문제 없이 해치울걸 가지고요
《아버지 2톤 7백이지 얼마야요》

《아니아니 그것은 어림도 없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머리만 저으세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 못 했을가
한 로력일에 알곡 3킬로그람
삼구는 이십칠, 틀림 없는데…

아니 아버지는 왜 틀렸다고 하실가?
옳지 옳지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 3톤 5백킬로야요》

그제야 아버지는 만족해 하시며
5점 받은 내 학습장 펼쳐 보겠죠

우대제 받으신다 기뻐하시며
올해의 풍년 이끈 우리의 수상님과
청산리 이야기 하시던 말씀
나는요 생각하고 알아 맞췄죠

일 잘하여 계획 넘친
아버지네 작업반
한 로력일당 2킬로씩
더 받는다 하잖아요

황해 북도 서흥군 락촌 중학교
2학년 2반
리 오일

동요

나의 전동기야

건전지를 이어 놓면
내 지혜를 자랑하듯
신기하게 돌아 가는
사랑하는 전동기야

자그마한 도면을 그려 가면서
코일을 감았다 풀었다
너를 위해 끼니를
몇기나 잊었더냐

귀여운 내 전동기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전동기의 원리》는
이젠 정말 환 하구나

내 오늘 비록
자그마한 너를 낳았지만
기술 학교 졸업을 하면
탈곡장의 탈곡기도 쟁쟁 돌리는
힘 장수 전동기를
만들어 주마

함남 송화군 명례 중학교
3학년 김 동은

공작

얼음 썰매 만들기

즐거운 겨울이 왔다. 올해도 썰매, 스케트, 스키 타기로 겨울을 튼튼하고 보람 있게 보내자, 그럼 자기들의 손으로 썰매를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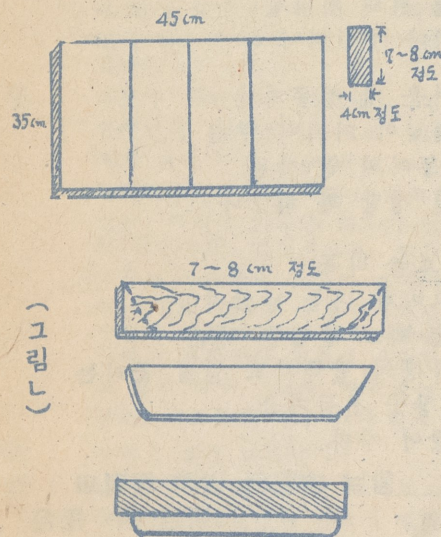
버린 엷은 나무 토막과 판자 쪽들을 리용하여 만든다.

ㄱ, 우판 만들기

(그림ㄱ)와 같다.

(그림ㄱ)

(그림ㄴ)

ㄴ, 굽 만들기

굽(그림 ㄴ)은 준비된 나무 토막을 적당히 리용하면 된다. 높이나 넓이를 특별히 결정할 필요는 없으나 보통 그림과 같은 치수 정도의 나무 토막이 있으면 된다.

ㄷ, 철사 달기

굽에 대는 철사(그림 ㄷ)는 굵은 철사를 휘여 그림과 같이 박는다.

ㄹ, 송곳

썰매 송곳(그림 ㄹ)은 곧은 나무 가지나 곧은 나무 토막을 깎아서 사용하며 끝은 통통한 철사 또는 긴 못을 량 끝을 갈아서 박아 쓴다. 못이나 철사를 박은 쪽에는 쪼개지지 않게 가는 철사나 노끈으로 단단히 감는 것이 좋다.

길이는 자기의 취미에 맞게 적당히 만든다.

(그림ㄷ)

(그림ㄹ)

(다된 썰매)

공작

뜨게질법

뜨게질에는 대 바늘 뜨기와 갈구리 바늘 뜨기가 있으며 재료로서는 모실, 무명실(굵은것 또는 가는 것) 등을 리용해 의복, 소지품, 레스 등을 뜹니다.

갈구리 바늘의 기초 뜨기

갈구리 바늘로 기초 뜨기를 뜨는 방법은 그림 (1) 과 같이 갈구리 바늘에 실을 걸쳐 뽑아 반복합니다.

이것을 고리 뜨기라고 하며 무엇이든지 이 고리 뜨기를 뜬 다음에 뜨게 됩니다.

그림(2)는 짧게 뜨기이며 우선 필요한 고리 뜨기를 뜨고 한 코를 꿰여 두 코를 동시에 뜹니다.

그림(3)은 길게 뜨기이며 우선 필요한 고리 뜨기를 뜨고 그림에서와 같이 고리 뜨기를 세 코 더 뜨고 바늘에 실을 길게 걸고 고리 뜨기 네째 번 코에 바늘을 꿰여 실을 잡아 뽑아 두 코 뽑고 다음 나머지 두 코를 잡아 뽑습니다.

△ 솔잎 뜨기

솔잎 뜨기는 코수를 6코의 배수에 한코 더 많이 고리 뜨기를 뜨고 시작합니다.

첫 줄에서 고리 뜨기 네 번째 코에 길게 뜨기 다섯 코 뜨고 또 고리 뜨기 세 번째 코에 짧게 뜨기를 한 코 뜹니다.

둘째 번 도리에서는 고리 뜨기 세 코 뜨고 밑에서 길게 뜨기 두 번 뜨고 다음 짧게 뜨기는 첫 줄의 길게 뜨기 다섯 코의 중앙에서 뜹니다. 이와 같이 그림 2의 (ㄱ)—(ㅁ)의 순서에 의하여 뜹니다.

이러한 갈구리 바늘 뜨기의 기초 뜨기를 응용하여 원형 바치개를 떠 봅시다.

원형 바치개 (그림 4)

원형 바치개를 뜨기 위해서는 먼저 고리 뜨기를 세 코 뜨고 원을 지어 첫 번과 둘째번 도리에서는 한 코에 두 번씩 꿰여 뜨고 보면 12코로 됩니다.

다음 세째 번 도리에서는 한 코 건너 두 번씩 꿰여 뜨면 18 코로 됩니다.

네째 번 도리에서는 두 코 건너 두 코씩 꿰여 뜨면 24 코로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 도리마다 여섯 코씩 늘이면서 뜨면 원형으로 떠집니다.

열두 도리를 뜬 다음 그림 4 에서와 같이 솔잎 뜨기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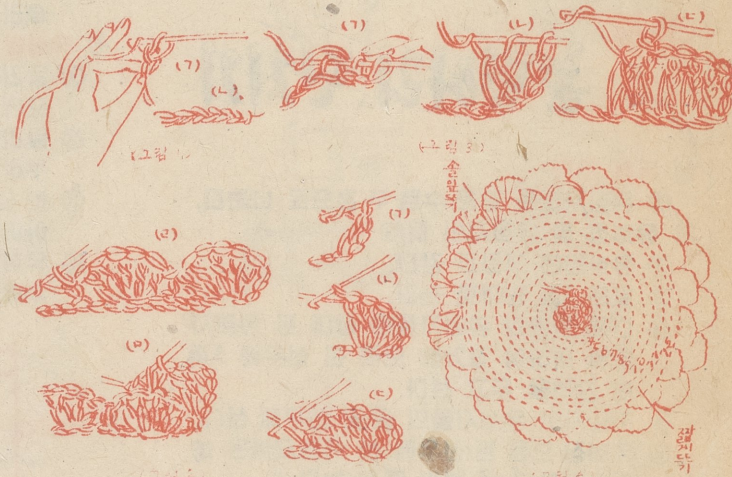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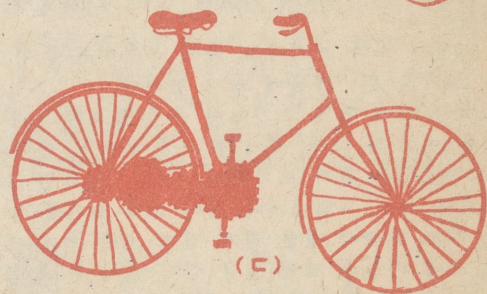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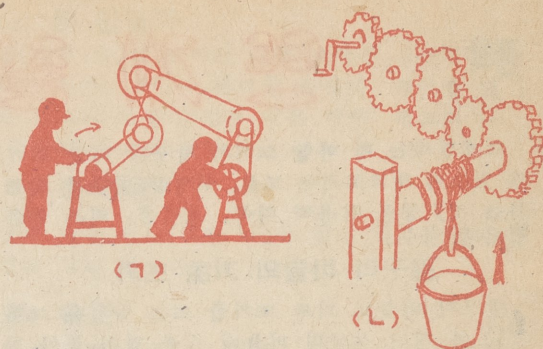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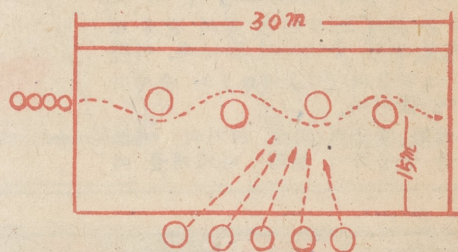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응용하여 떠 봅시다.

어디가 틀렸을가요

그림 《ㄱ》 에서는 도끼의 날을 갈고 있으며, 그림 《ㄴ》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그림 《ㄷ》에서는 새로운 자전거를 생각해 냈습니다. (즉 보통 자전거에 있는 사슬을 두 개의 치차로 바꾸어 놓았다) 이 그림들을 보고 잘 못된 곳과 그 원인을 밝혀 보십시요.

유희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② 렬은 1렬 종대로 선다.
③ 다른 한편의 유희자들은 상대 편 유희자들에 대하여 경기장 오른 편 선우에 4m의 간격을 두고 선다.
④ 지도자는 유희자들의 왼 편 선우에 선다.
⑤ 유희장 오른 편 선우에 선 유희자들은 눈 덩어리를 3~4 개씩 준비 한다.

3) 유희 방법
① 출발 신호에 의하여 종대로 선 유희자들은 출발선과 결승점 사이에 있는 눈 무지의 사이를 누비는 (ᔕ) 형으로 자유로이 뛰여 간다.
② 눈 덩어리를 준비한 유희자들은 준비된 눈 덩어리를 던져 달려 가는 유희자를 마친다.
③ 달려 가는 유희자는 던지는 눈 덩어리를 피하여 결승점까지 가서는 다음 출발 신호에 의하여 같은 동작으로 돌아 온다.
④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유희가 끝나면 교대하여 다시 유희를 시작 한다.
⑤ 눈 덩어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은 편이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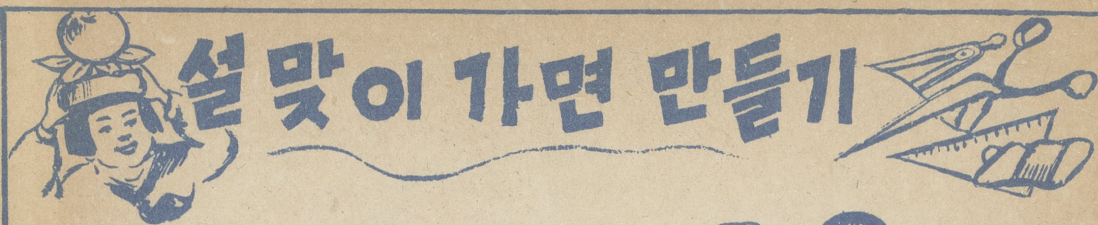
4) 유희할 때 주의할 점
① 달리는 유희자는 던지는 눈 덩어리를 잡으면 맞지 않은 것으로 된다.
② 달리는 유희자는 반드시 눈 무지 사이를 누비듯 달려야 한다.
③ 눈 덩어리에 돌, 유리 기타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④ 유희장의 크기는 유희자들의 학년, 인원 수에 따라 적당히 할 수 있다.

정정: 본호 29 페지 오른쪽 단 10행에 있는 《각》 자는 《간》자의 잘못이므로 고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12호 (총13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68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설맞이 가면 만들기

우리는 머지 않아 승리와 영광에 찬 이 해를 보내고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들고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 나갈 희망찬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 보람찬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동무들을 위하여 다음에 설맞이 모임에 쓸 가면 몇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